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추상화에
질문
던지기를
통한
미술과
표현력
신장
연구

임은경

2016



석 사 학 위 논 문

추상화에 질문 던지기를 통한
미술과 표현력 신장 연구

A Study on Improving Expressiveness in Art Class
through Asking Questions to Abstract Painting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임 은 경

2016년 10월

석 사 학 위 논 문

추상화에 질문 던지기를 통한
미술과 표현력 신장 연구

A Study on Improving Expressiveness in Art Class
through Asking Questions to Abstract Painting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임 은 경

2016년 10월

추상화에 질문 던지기를 통한
미술과 표현력 신장 연구

A Study on Improving Expressiveness in Art Class
through Asking Questions to Abstract Painting

지도교수 오 재 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임 은 경

2016년 10월

임 은 경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년 12월

목 차

표목차	i
그림목차	iii
국문 초록	iv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내용	3
3. 연구방법	4
4. 연구의 제한점	5
II. 이론적 배경	6
1. 추상화의 이해	6
2. 초등학교 발달단계에 알맞은 질문 전략	15
3. 시각적 문해력의 중요성	17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19
1. 추상화에 질문 던지기란 무엇인가?	17
2. 연구 참여자 분석	25
3. 수업의 실제	31
IV. 요약 및 결론	76
1. 요약	76
2. 결론	78
참고 문헌	80
 ABSTRACT	 82
 부 록	 84

표 목 차

〈표 III-1〉 추상화 작품과 지도요소	21
〈표 III-2〉 사전설문지 1번 문항	25
〈표 III-3〉 사전설문지 2번 문항	26
〈표 III-4〉 사전설문지 3번 문항	26
〈표 III-5〉 사전설문지 4번 문항	27
〈표 III-6〉 사전설문지 5번 문항	28
〈표 III-7〉 사전설문지 6번 문항	28
〈표 III-8〉 사전설문지 7번 문항	29
〈표 III-9〉 사전설문지 8번 문항	30
〈표 III-10〉 수업의 구성	32
〈표 III-11〉 제1기 수업과정안	35
〈표 III-12〉 제1기 수업결과물	37
〈표 III-13〉 제2기 수업과정안	38
〈표 III-14〉 제2기 수업결과물	40
〈표 III-15〉 제3기 수업과정안	41
〈표 III-16〉 제3기 수업결과물	43
〈표 III-17〉 제4기 수업과정안	44
〈표 III-18〉 제4기 수업결과물	45
〈표 III-19〉 제5기 수업과정안	47
〈표 III-20〉 제5기 수업결과물	48
〈표 III-21〉 제6기 수업과정안	50
〈표 III-22〉 제6기 수업결과물	51
〈표 III-23〉 제7기 수업과정안	53
〈표 III-24〉 제7기 수업결과물	55

〈표 III-25〉 제8기 수업과정안	56
〈표 III-26〉 제8기 수업결과물	58
〈표 III-27〉 제9기 수업과정안	59
〈표 III-28〉 제9기 수업결과물	61
〈표 III-29〉 제10기 수업과정안	62
〈표 III-30〉 제10기 수업결과물	64
〈표 III-31〉 사후설문지 1번 문항	64
〈표 III-32〉 사후설문지 2번 문항	65
〈표 III-33〉 사후설문지 3번 문항	65
〈표 III-34〉 사후설문지 4번 문항	66
〈표 III-35〉 사후설문지 5번 문항	67
〈표 III-36〉 사후설문지 6번 문항	67
〈표 III-37〉 사후설문지 7번 문항	68
〈표 III-38〉 사후설문지 8번 문항	69
〈표 III-39〉 사후설문지 9번 문항	70
〈표 III-40〉 사후설문지 10번 문항	70

그림 목 차

[그림 III-1] 고대의 소리	28
[그림 III-2]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28
[그림 III-3] 브로드웨이 부기우기	30
[그림 III-4] 검정과 흰색의 구성 No.10:부두와 해양	33
[그림 III-5] 색 나무	34
[그림 III-6] 다의 빛	37
[그림 III-7] 고래와 나	37
[그림 III-8] Concepto Especial	37
[그림 III-9] 방학 때 내가 했던 일	40
[그림 III-10] 내가 미래에 살고 싶은 집	40
[그림 III-11] 인상III	40
[그림 III-12] 알록달록한 노래	43
[그림 III-13] 천국과 평화	43
[그림 III-14] 종을 달고 있는 천사	43
[그림 III-15] 다리가 아파서 콩콩 뛰는 천사	45
[그림 III-16] 사랑의 수호천사	45
[그림 III-17] 동시에 열린 창, 1부, 제2모티브	46
[그림 III-18] 포근한 나의 학교	48
[그림 III-19] 학교 정원	48
[그림 III-20] Vega	49
[그림 III-21] 흐트러지는 빛	51
[그림 III-22] 나(I)	51
[그림 III-23] 달팽이	52
[그림 III-24] 기린	55
[그림 III-25] 따뜻한 눈과 차가운 눈 사이의 꽃 2송이	55
[그림 III-26] 흰색 사각형 위의 흰색 사각형	55
[그림 III-27] 그리운 무한의 계단	58
[그림 III-28] 흰색	58
[그림 III-29] Number-1	58
[그림 III-30] 제작과정	61
[그림 III-31] 우리는 하나	61
[그림 III-32] 주황과 노랑	61
[그림 III-33] 여름	64
[그림 III-34] 겨울	64
[그림 III-35] Legend of The Nile	71

국 문 초 록

추상화에 질문 던지기를 통한 미술과 표현력 신장 연구

임 은 경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오재환

본 연구는 추상화에 질문 던지기를 통한 미술과 표현력 신장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제주시에 소재하는 1개 초등학교 5학년 28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10회기에 걸쳐 미술과 감상 및 표현수업을 지도하였다.

지도에 앞서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하여 사전설문지를 제작하였는데, 미술과 영역별 선호도와 추상화 대한 이해 여부 등 미술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와 추상화 감상 및 표현활동 결과물, 사후설문조사를 비교-검토하는 방법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표현력 신장의 도구로 추상화를 선택한 이유는 광범위한 재료의 사용과 제작방법에 있다. 표현에 대한 부정적인 제약을 낮추고 자유로운 발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상화 감상을 도입하고 이를 표현활동과 연계하였다.

각 수업의 동기유발은 추상화 감상으로 시작하여 그림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대답을 찾아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전개 단계에서는 추상화의 표현기법 또는 제재에서 영감을 받은 후 작품을 구상하고 제작하였다. 수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학생들이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였다.

본 연구주제에 대하여 사전, 사후설문지와 수업결과물을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미술교육과정을 통해 추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시기에 편견 없이 다양한 예술 양식의 아름다움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의무이다.

둘째, 미술 교과에서도 질문을 중요한 콘텐츠로 다루어져야 한다. 질문을 하는 행위는 텍스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며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첫걸음이자 결과물이다.

셋째, 다양한 추상화를 학생들에게 소개하여야 한다. 현존하는 추상화의 수만큼 각기 다른 감수성과 문화가 공존한다.

넷째, 학생들에게 재료선택과 표현방법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개성있는 감성과 욕구를 담을 수 있는 알맞은 수단을 고를 수 있게 된다면 발상에 대한 스트레스 및 ‘완벽한’ 표현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미술과 표현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미술과 ‘표현력’의 범위 안에 발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무엇이 예술인가?’에 대하여 끊임없는 재정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도 미술과 표현력의 범위를 넓히는 시도를 통해 학생들의 심미안을 신장시키고 표현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시각적 문해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적 자극을 제공하여야 하며, 학습자는 미술 작품에 관하여 스스로 질문을 구성해가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예술가와 동급의 위치를 확보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예술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추상화, 질문, 표현, 발상, 시각적 문해력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튜링 테스트¹⁾에 대한 브라이언 크리스찬의 저서 ‘가장 인간적인 인간 The most human human(2012)’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도널드 바설미에 따르면 “무지는 예술에서 매우 중요하며, 무지를 통해서 예술은 창조된다”라고 한다. 그는 여기에서 “내가 이것을 시도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나는 다음에 무엇을 할까?”와 같은 의문도 창의적 과정이라고 한다.(p.374)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을 꺼려한다. 그리고 자신이 잘 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분야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배우기를 기피 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미술수업 시간에 “나는 그림을 못 그려요.”라고 이야기하며 두 시간을 흘려보내고 빈 캔버스를 제출하는 학생들을 드물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 여기서 이 논문의 문제제기가 시작된다. 교사는 학생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제거하고 개성 있는 표현의 세계로 이끌 수 있는가?

인간이 동물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문화적 존재(Kulturwesen)’라는 것이다. 영국의 문화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리처드 호거트(Ricgard Hoggart, 1970:156)에 의하면, “문화란 어느 특정한 사회의 총체적인 삶의 방식, 신념, 태도 그리고 특징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들은 그 사회의 모든 구조, 의식, 몸짓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정의된 예술형태로도 표출된다.”고 하였다.(김성숙 외, 2003, 미술교육과 문화, p.26)

미술은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걸어온 삶의 기록이 남아있는 예술의 한 분야이다. 우리나라 울산에 남아있는 반구대 암각화,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 벽화 등을 통해 인류가 1만 5,000년 전부터 미술을 의사소통 방식의 하나로 받아들였다는

1) 이 검사의 명칭은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 Alan Turing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구석기인들은 자신들의 생활양식을 동굴 벽에 그렸다. 그들은 ‘개념적 사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연을 ‘보이는 대로’ 그릴 수 있었다. 신석기 시대로 들어서면 사정은 달라진다.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인간의 사유 능력에 추상 능력이 요구되었다. 자연의 도식과 질서 속에서 인간은 개념을 뽑아냈고 이는 추상적 표현양식으로 나타났다.(진중권, 1994, 미학오딧세이 1권, pp.27-31)

생각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인간 고유의 특성을 살펴봤을 때, 미술은 가장 직접적이면서 표현의 폭이 넓은 교류의 수단이며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과 만남의 장인 동시에 독자적인 관점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고과정을 요구한다. 그 중에서 추상표현은 관념의 세계를 실재로 표현하면서 미지의 대상에 대한 정보를 주관적으로 조직하는 지적활동의 일환이다. 추상 표현은 생각하는 능력의 발달과 함께 인류문화에 나타났으며,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인 미술 안에서도 표현 양식의 폭이 넓고 형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특히 어린이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 등을 미술적인 매체로 자유롭게 솔직하게 표현하여 미술을 자기발현의 훌륭한 방법으로 활용한다. 지각하고, 유추하며, 변형하는 것은 모두 추상화와 관련이 있다.(윤민주, 2013, 루퍼트 버스타인의 사고도구를 활용한 미술과 발상지도 방안 연구, p.32)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구상적 표현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며 학생 결과물에 대한 평가도 구상표현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는 미술활동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미술 활동에 대한 부정적 양상의 공통적인 특징은 학생들이 미술 활동을 수동적으로 영위한다는 것이다.(김경태, 2016, 미술활동에 대한 부정적 양상을 개선하기 위한 미술수업방안연구, p.1)

주어진 주제에 대해 일정한 표현양식을 따라가도록 지도하다 보니 자신들의 표현양식을 찾지 못한 학생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담대하게 자신의 생각을 시각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구성해나가는 방식으로 나타내지 못하면서 미술 본래의 기능을 인지하지 못하고 한정된 시간 안에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서두르기만 할 뿐이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자기 본연의 개념 틀을 완성해 나아가는 학생들의 사고 발달 단계에 알맞지 않으며 내면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

다.

추상표현에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작가가 가지는 생각에 다가서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작가가 남겨놓은 여백을 자신의 생각으로 구성해나가는 재창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창작 과정을 통해 관람자는 작품과 대화를 나눔과 동시에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 감정의 총체와 대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것은 한 단계 위의 사고력을 요구하며 관람자가 창작자의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시각적 문해력(文解力, visual literacy)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시각 이미지의 활용능력으로 가시적(可視的)으로 문화를 읽어내고 쓰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것은 오늘날 다양한 시각적 문화양식들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필요한 능력으로서 시각적으로 생각하기, 시각적으로 읽기, 시각적으로 쓰기를 포함하며 궁극적으로는 시각적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이규선 외, 1994, 미술교육학, p.4)

결국 관념과 사고의 결과물인 추상화에 질문을 던지는 사고과정을 거치며 인간의 기본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다른 개체와 환경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상화에 질문을 던지며 작품을 관찰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을 신장시키며 이를 다양한 표현 양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입체작품과 평면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발달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추상화만 다루기로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추상화 감상 및 표현 활동을 통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미술과 표현력을 신장시키는 데 있다. 학생들은 추상화를 감상하고 난 후 두 가지 종류의 질문을 던지게 된다.

첫째, 작품의 조형요소에 대해 살펴보는 작품 내적 질문이다.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작품의 관찰자로서 작품에서 나타나는 조형요소를 살펴보며 추상화를 분석

하는 과정이다.

둘째, 작품을 관람하는 학생의 경험과 관련짓는 작품 외적 질문을 던져보며 학습자의 내적 스키마를 작품과 연관 짓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추상화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발달단계에서 지도하기 알맞은 미술 양식인가?

둘째, 추상화에 질문을 던지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표현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가?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8명이며, 연구기간은 2015년 9월 1일 ~ 2015년 12월 31일이다. 총 10회기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2009개정교육과정 상 정규 미술시간을 이용하여 40분씩 실시하였다.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미술관에서 선호하는 활동 형태를 조사하였으며 추상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기간 동안 학생들은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 루치아노 폰타나(Luciano Fontana),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파울 클레(Paul Klee), 로베로 들로네(Robert Delaunay), 빅토르 바자렐리(Victor Vasarely),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카지미르 말레비치(Kazimir Malevich), 잭슨 폴락(Jackson Pollock), 마크 로스코(Mark Rothko)의 추상화를 감상하고 각 작품에 대해 작품 내적·외적인 질문을 하는 활동을 하였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학급 공동으로 함께 찾으며 작품 감상 활동을 하는데, 이 때 교사는 안내자로서 활동에 참여한다. 감상 활동 후 추상화에 나타난 기법 및 주제를 바탕으로 표현을 한다. 주제와 표현 기법이 감상작품과 같지 않아도 되도록 지도하였다.

10회기가 끝난 후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추상화 감상 및 표현을 통해 표현활동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는지 조사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3개월 동안 28명의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어렵다. 단일그룹에 한하여 연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비교 연구를 통한 폭넓은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명백한 한계점이다.

또한 추상화의 특성상 다양하고 개성적인 작품들 중 일부만 학생들에게 소개를 하므로 학생들의 표현양식이 다양하게 나타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서양화가의 작품을 위주로 소개하고 표현기법을 안내하였기 때문에 그와는 감수성이 다른 동양 추상화, 그 중에서도 한국 추상화에 지도가 전무하여 다양한 학생들의 내면을 시각적으로 옮기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으며, 이는 시간의 제약에 따른 것으로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질문’이라는 언어적 표현방식이 미술과의 시각적 표현양식과 얼마만큼의 학문적 밀접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토대가 더 필요하다.

II. 이론적 배경

1. 추상화의 이해

가. 추상화의 개념

추상회화라는 단어는 라틴어인 ‘abs-trahere’에서 유래된 것으로, 어떤 대상에서 근원인 것을 추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어떤 상을 그 전체상에서 생략하고, 제거하고, 정리하는 것을 ‘추상’이라 할 수 있다.(이민희, 2005, 미술비평을 통한 추상미술지도 방안 연구, p.4)

추상회화에서의 추상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상에서 비본질인 것을 버리고 본질인 것만을 파악하려는 추상이고, 하나는 구상과 반대되는 말로 상과는 무한 비구상적 성격을 강조하려는 추상이다. 이런 점에서 칸딘스키나 몬드리안의 작품을 보면, 그것은 자연적 대상을 상상할 수 없는 순수한 선과 색의 묶음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칸딘스키가 자신의 강한 내적 충동을 선과 색으로 격렬하게 표현하다면, 몬드리안은 형태에 있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질서를 선과 색의 비례로 냉정하게 표현하다는 점에서 미술사에서 뜨거운 추상과 차가운 추상의 대표적 화가로 불린다.(박신영, 2014, 생각의 도구를 통한 추상표현 지도 방안 및 효과 연구, p.10)

우리나라 국어대사전에서 ‘추상미술’은 1910년경부터 일어난 예술사조로서, 물체의 선이나 면을 추상적으로 승화하고, 혹은 색채의 어울림을 추구하여 이것을 조형적인 작품으로 구성하는 일이라고 표기한다. 또한 ‘추상화’는 ‘사물의 사실적인 재현이 아니고 순수한 점, 선, 면, 색채에 의한 표현을 목표로 하는 그림이라고 한다.

이것은 사물을 구체적이고 사실중심으로 묘사하던 미술양식에서 벗어나 형태를 집착할 수 없는 조형요소의 최소단위인 점, 선, 면, 색채, 형 위주의 미술작품과 미술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김이경, 2003, 추상회화 감상에 대한 연구, p.6)

나. 추상화의 발달사

추상미술의 개념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정신의 자아의 본질을 제시하는 것이며 존재의 본질 문제를 시각적 매체를 통해 답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추상은 추상표현주의, 구상표현주의, 색면추상, 팝아트 등 작가의 생각을 표현하는 현대미술의 모태가 되는 개념이기도 하다.(이나영, 2013, 추상미술과 자아의 감성표현 연구, p.5)

추상 회화를 누가 가장 먼저 시작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1910년 칸딘스키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말한다. 그러나 추상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추상회화가 그려지기까지는 야수주의(Fauvism)나, 표현주의(Expressionism), 혹은 입체주의(Cubism)의 향을 받아 서서히 추상으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김이경, 2003, p.20)

알프레드 바(Alfred Barr)²⁾는 추상미술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전통으로 구분해 주고 있다. 하나는 인상에서 세잔느를 거쳐 큐비즘을 형성하여 기하학·구성적 운동으로 확대되어 가는 지·구조·건축 방향이며, 다른 하나는 인상파에서 출발하여 고갱을 거쳐 마티스의 야수주의, 칸딘스키의 초기표현주의, 다시 표현적 추상으로 확대되어 가는 신비적·자발적·비합리적 방향이다. 후자의 경우는 초현실 주의와도 관계되며, 직관적·정감적이며 곡선적·장식적이고 낭만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를 정신인 면에서 큐비스트·기하학인 전통으로, 후자를 표현주의·비기하학적 흐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 시작은 1910년대 초의 프랑스, 독일, 러시아에서 볼 수 있고, 1920년 전후에 속히 발전해 갔으며 다시 1930년대에는 그 모두가 파리에 집결되어 국제적 운동으로 전개됨으로써 현대미술을 양분하는 커다란 영역이 전개된 것이다.

1932년 <추상창조>가 조직되어 추상예술의 국제 단결을 실현시켰지만, 이 그룹은 4년 동안의 활동 중 추상예술의 한계에 도달하여 제2차 세계를 끝으로 추상미술의 활동이 정체되기에 이른다.

제 2차 세계 후의 미국에서는 활발한 추상미술의 일파가 나타나 큰 영향을 주었다. 회화에 있어서는 가장 정열적인 표현주의의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윌렘드 쿠닝(Willem de Kooning)에서 보다 한층 비개성인 작품의 마크 로트코(Mark Rothko)

2) 알프레드 바는 뉴욕 Museum of Modern Art의 초대관장이었다.

Mark Rothko), 바넷 뉴먼(Barnet Newman)까지 차갑고 억제된 다양한 기법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들은 미술의 본래적인 요소였던 포름(Forme)조차도 부정하여 비정형인 표현을 즐겨 다루었고, 그린다는 행위 자체에 중점을 두었다.

유럽에서는 막스 빌(Max Bill)이나 빅토르 바자렐리(Victor Vasarely)등이 요소주의의 원리를 추구하며,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나 조르지 마티(Georges Mathieu)등은 자유추상, 혹은 유럽에서 앙포르멜(Artin formel)이라고 불리어지는 예술을 새로운 극한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박신영, 2014, pp.12-13)

다. 추상화와 아동정서

현대미술 표현기법이 아동의 표현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미승의 연구(2010, p.1)에 따르면 아동에게 있어서 미술은 언어 다음의 의사수단이며 표현 수단이다. 그들은 표현하는 색과 형태로 무의식적인 혹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남에게 그리고 자신 스스로에게 전달한다.

이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원영미, 2011, 현대미술사조의 양식을 활용한 미술 표현 지도 방안 연구)에 의하면, 로웬펠드(Victor Lowenfeld)는 시각적 자극을 선호하여 관련된 외부세계에 대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강조하는 시각형(visual type)과 주관적 경험에 대한 해석에 보다 관심을 가지는 촉각형(haptic type)의 두 경향으로 표현 유형을 나누었다. 전통적인 미술 교육은 주로 시각적 자극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관적인 경향의 학생들에게 단순한 시각적 경험들로 동기부여를 한다면 좌절감을 느끼게 할 수 밖에 없다.

미술 교과서에 나타난 참고 작품을 분석해보면 분석 서양 회화, 표현 위주의 작품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표현 재료와 표현 방법 등의 과정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단순히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와 '작품을 살펴봅시다.'와 같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추상표현주의 미술 사조를 통해 학생들에게 일상적인 것과의 낯설음을 통해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으며, 내적 감정의 분출에 의한 우연의 효과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감정을 표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표현 활동

에 대한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미술활동에 대한 부정적 양상 개선과 관련된 선행연구(김경태, 2016)에 따르면 미술 과목은 인간의 정서와 이에 대한 표현을 다루는 고유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교육현장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백중열(2008)의 연구에서 미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실망하면서 자신감을 상실하는 부정적 정서가 생긴다는 것, 형태를 벗어나지 않게 사실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 판화그림과 같이 단순한 모방은 학생들의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는 점들을 알 수 있다.

김윤화(2000)는 초등미술교육에서 추상미술지도의 방향 모색 연구에서 추상미술지도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로 현대미술의 확장, 미술에 대한 편협한 인식 탈피, 창의적인 표현력 신장을 들었다.

표현 주제 선정의 문제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능력과 연관이 있다. 8절 도화지라는 정해진 규격 안에서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일은 쉽지 않다. 더군다나 부끄러움과 걱정스러운 감정은 미술 활동에서 상호간 소통을 단절시킨다는 문제점을 낳는다.

주제선정의 어려움과 미적 감수성 부족, 미술용구와 재료 사용의 부담감, 타인의 시선의식 및 비교, 부정적 정서의 발생과 영향은 미술 활동에서 주체가 되지 못하게 하여 부정적 정서를 발생시킨다.

현재 심리학에서는 대체로 정서를 감정의 상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정동, 기분, 분위기 등의 뜻을 포함한다. 다양한 정서들은 학생들의 미술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미술 활동의 정서들은 학생들이 자아를 표현하는데 다양한 영향을 준다.

라. 초등학생의 미적 인지 발달단계

인지란 감각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기억하여 이를 기억, 재생하며 사고, 추리, 문제 해결 등에 이용하여 환경과 자신에 대한 인식을 획득해 가는 능동적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시각을 매개로 일어나는 인지의 과정은 학생이 대상의 본질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통찰하도록 해 준다. 예술교과에서 이루어지는 감각과 감성, 지성의 작용은 미

적 본질에 대한 지각 및 반응 능력을 길러주어 풍부한 감성을 갖게 한다.

초등학생의 미적 인지 발달단계와 관련된 선행연구(이홍수, 2008, 초등학생의 미적 인지 발달단계에 관한 연구, pp.55~59)를 살펴보면, 미적 인지는 미적 지각, 미적 인식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미적 대상에 대한 인지 과정을 의미한다.

파슨즈(Parsons, 1987)에 따르면 미적발달은 연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며 나이에 따라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미적 경험의 횟수와 양에 의해 차이를 보인다. 지적 수준이 발달하기 이전의 어린 나이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발달 단계를 보인다.

취학 전 아동들은 대부분 1단계에 해당되고, 초등학교 학생은 2단계에 해당되며, 청소년기 학생 중 일부는 3단계에 해당된다. 그 이상의 단계에서는 개인의 미적 경험에 의존한다. 파슨즈가 파악한 미적발달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애호(favoritism) 단계의 특징은 거의 모든 그림에 직관적으로 기쁨을 느낀다. 색에 대하여 강하게 매력을 느끼고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연상을 한다. 어린 아이들에게 그림의 주제나 양식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단계의 일반적인 특징은 그림과 관련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대로 즐겁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림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림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 또한 색이나 주제를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나쁜 그림은 존재하지 않는다. 객관적 문제나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 단계에서 아이들은 그림에 표현된 색이라든가 그림에 등장하는 대상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림 속에 자신이 좋아하는 색이 표현되어 있으면 그 그림의 내용이나 사실성, 형태와는 상관없이 좋은 그림으로 인식하는 단계이다. 또한 자기의 경험 속에 좋은 경험으로 기억되는 대상이 등장하면 좋은 그림으로 여긴다.

2단계, 아름다움과 사실성(beauty and realism)의 단계에서 지배적인 생각은 '주제'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주제란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구체적인 대상을 말한다. 이 단계는 표현에 대한 생각들로 구성된다. 그림의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를 재현하는 것이다. 매력적인 주제가 표현되었거나 표현이 사실적인 그림이 좋은 그림이 된다. 감정은 미소나 동작을 통해 표현되고 양식은 오직 사실성에 의해서 평가받는다. 또한 표현 기술이나 작가의 인내, 주의력 등이 칭찬 받을만한 대상이 된다. 아름다움과 사실적인 표현, 그리고 그러한 작가의 기술이 그림을 판

단하는 기준이 된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을 은연중에 인정하고 있기에 앞 단계에 비하여 진보적이다. 표현에 대한 관념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과 표현된 것과의 차이를 구별할 것을 요구한다. 그림을 보고 연상되어지는 것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감상자는 표현된 아름다운 주제에 관심을 갖는데,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뿐 아니라 대상으로 인해 감상자가 가지게 되는 즐거움까지도 아름다운 주제가 된다. 1단계에서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그려진 그림을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림 속에 나타난 대상이 그림 속에서 자아내는 분위기(행복함, 아름다움.....)등을 통해서 좋은 그림으로 생각하게 된다. 비사실적인 표현이나 추상적인 표현들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3단계, 표현성(expressiveness) 단계의 중요 관점은 표현성과 관련이 있다. 그림이 자아낼 수 있는 경험이 더 강하고 흥미로울수록 그림은 더 좋은 것이 된다. 강렬함과 흥미는 경험의 진실함을 보증한다. 표현된 느낌이나 생각은 예술가나 관찰자 혹은 모두의 것이 되기도 한다. 예술의 목적은 누군가의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다. 주제의 아름다운 표현보다 무엇이 표출되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주제가 갖는 아름다움은 표현의 방해가 되기도 하며 사실성과 표현 기술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창조성이나 독창성, 감정의 표출정도가 높게 평가된다. 그림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객관적인 판단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중요한 기준은 개인이 느끼는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경험의 내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고, 그들의 특별한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게 되므로 전 단계에 비하여 진보적이다. 표현된 그림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 경험의 바탕 위에서 그림의 의미를 이해한다. 그림에 대한 경험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평가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작품을 폭넓게 볼 수 있고, 표현적인 특징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된다.

4단계, 매체·형태·양식 단계의 주요한 관점은 그림이 갖는 의미가 개인보다는 사회적 환경이나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림의 의미는 많은 작품들에 대한 사람들의 오랜 관찰과 그것들에 대한 대화에서 구성된 전통 안에 존재한다. 인터뷰 응답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보다 의미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찾는데, 그들은 서로를 보다 꼼꼼하게 보도록 도와준다. 작품은 공적인 공간 안에 존재하고 매체와 형태, 양식을 보는 관점은 상호 주관적인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작품 사이에는 서로 관련이 있으며, 작품의 의미는 그것에 관련된 광범위한 집단에 걸쳐서 이야기되는 내용에 의해서 성립되었다. 작품에 대한 이러한 모든 해석들은 공적이며 그것의 의미와 관계가 있다. 작품과 관련된 집단의 폭넓은 논의에 의해 구성된 작품의 의미는 개인에 의해 내적으로 이해된 것을 초월한다.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안목으로 전망하는 능력을 가지게 됨으로 전 단계에 비하여 진보적이다. 이러한 전통에 기초한 안목은 개인적으로 그림을 바라보는 것보다 복잡하고 인지적인 활동이다. 한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각의 해석은 모두 그 자체로 독자적인 관점에서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한 '전통'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체, 형태, 양식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주제나 정서에 의해 야기되는 문학적인 정감과 작품 속에 실현되어 있는 정감을 구별할 수 있다. 그림의 양식적, 역사적 연관성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고 해석할 수 있는 의미의 종류가 확대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이치에 맞게 객관적으로 미학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미술비평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며, 미술을 보고 해석함에 있어 개인적 취향이나 선호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역사적이고 맥락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시대적으로 다양한 미술형식이나 미술사조, 표현재료에 이르기까지 눈앞에 보이는 작품을, 거시적 안목으로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시각속에서 해석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은 감상자로서 뿐만 아니라 가이드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일반인이 아닌 예술대학교 재학생이나 예술전문가, 대학 교수 등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5단계, 자율성(autonomy)의 단계에서의 중요한 관점은, 미술작품의 의미와 가치의 판단은 역사와 함께 변하는 것이며, 현재 상황에 맞게 끊임없이 재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판단은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것이 된다. 판단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달려 있다. 개인의 경험이 미적 판단을 내리는 유일한 근거이며, 미적 가치 결정은 개인의 책임 아래 자신의 충분한 이해에서 얻어진 관점으로 판단하고 수정할 수 있다. 감상 작품의 가치 판단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반면, 판단에 대한 수용의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 개인의 가

치 판단을 받아들이고 재검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다 적절한 판단을 위한 시도가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미술작품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미적 판단은 개인의 책임에 따라 이루어지고, 가치판단의 수용에 대한 대화와 상호주관적인 이해, 사회 공공의 책임 속에서 가치 판단은 변형되고 재정립되는 것이다. 이 단계는 문화적 관점을 초월할 것을 요구한다. 문화적 관점을 초월한다는 것은 이미 성립된 관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이해의 능력을 의미한다. 미술작품에 대해 미묘하게 반응할 수 있고 전통적인 기대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발달한다. 또한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재검토와 조정을 통해 창작과 감상의 측면에서 보다 알맞게 예술의 실용성을 이해하고, 역사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예술의 실용성을 이해하게 된다. 자율성의 단계에서는 미술작품의 가치 판단이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상황적 특성에 맞추어 변화되고 자유롭게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 판단의 책임은 개인에게 달려있다. 개인이 가진 미적 경험에서 비롯된 미적 안목으로 미술작품을 시대적·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린다. 다른 대중들은 이러한 가치 판단을 받아들임에 있어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 책임 역시 대중에게 있다. 가치 판단을 내리는 사람 역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로운 판단을 내린다. 시대와 역사에 따라 가치는 변하게 된다. 이 자율성의 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재검토와 수정을 통해 자유롭게 가치를 재창출해내는 예술전문가, 비평가 수준의 미술인식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파슨즈는 미술에 대한 미적 인식이 연속된 다섯 단계의 발달을 거친다고 보았으며, 각 단계마다 4가지의 개념군(주제, 표현, 매체·양식·형태, 판단)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파슨즈는 취학 전 학생 대부분이 1단계 애호의 단계에 속하며, 청소년 중 일부가 3단계에 속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초등학생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단계는 2단계와 3단계이다. 2단계에서는 ‘주제’가, 3단계에서는 ‘표현성’이 미적 인지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한 판단이 모든 단계에서 일어나지만 5단계에서 자의식의 정점단계로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마. 초등학생의 표현발달단계

표현발달단계에 대한 이미승(2010, pp.14~16)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술표현에 있어 아동의 표현방법은 성인과 달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눈에 보이는 대로 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여 독특하게 표현한다. 아이들의 창작 활동을 격려해주는 일은 각기 개성을 충분히 발산시켜 균형 잡힌 성장에도모하는데 있다고 본다.

아동미술교육의 특징은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지만 미국의 교육학자 로슨(Lawson)은 분석 고찰을 통하여 바람직한 미술교육이란 작품을 만들어 내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성장 발달을 돕는데 있다고 하다. 기계적이고 도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미술을 통하여 인격 형성을 이루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아동의 심리, 능력, 개인의 이상에 맞도록 경험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동들은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주변 환경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변해가며 표현 방법도 다르게 나타난다.

아동의 성장 발달은 난화기(2~4세), 전도식기(4~7세), 도식기(7~9세), 또래집단기(9~11세), 의사실기(11~13세), 사춘기(13~16세)로 구분하며, 표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구 그리기 표현이다. 첫돌이 지나고 만 2~3세에 그리는 그림으로 난화라고도 한다. 특별한 목적 없이 아무렇게나 그리는 시기로 근육의 움직임이 신체운동의 주가 되어 즐거움을 얻는다.

둘째, 아는 것과 자기중심적 표현이다. 만 3~8세의 유아는 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린다. 또, 그림의 주제가 자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시기로 자기를 중심으로 그리려는 특성과 자기가 본 것, 느낀 것, 경험한 것 등을 확실하게 알았을 때 자신 있게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다.

셋째, 집합표현을 한다. 만 5~6세의 시기로 산발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표현에서 사물을 모아 그리거나 붙여서 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넷째, 의인화 표현을 한다. 만 5~7세의 아동들은 자기와 친근한 사물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자신들처럼 생명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구름, 꽃, 해, 달 등을 그릴 때 웃거나 울거나 하는 표정을 그리며 자신과 얘기를 나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행동은 자기중심의 표현에서 외계사물을 친근하게 생각하여 표현하려는 욕구

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섯째, 기저선(基底線)을 표현한다. 만 6~8세에 흔히 나타나는 표현으로 도화지 하단부에 기선을 긋고 공간의 인식이 뚜렷해져서 땅, 하늘, 바다 등 수평공간을 의식하게 된다. 즉, 이 기선은 사물이 존재하는 지표면 뿐 만 아니라 바닥이나 거리, 어린이가 서 있는 어떤 기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섯째, 투시적 표현을 한다. 사물의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표현하는 것으로 린트겐 화법 또는 X-ray식 화법이라 한다. 집 속, 자동차 속, 땅 속 등을 표현이 외형의 정확한 표현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관념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아동의 정서 내부를 엿볼 수 있다.

일곱째, 반복 표현이다. 만 5~8세의 아동들은 같은 것을 여러 번 반복하여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자기에겐 관심 있는 상을 반복으로 한 화면에 그리는 특징으로 남아보다 여아에게 현상이 잘 발견된다.

여덟째, 구상 표현이다. 초등학교 2~4학년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림으로 자기가 본 것, 생각한 것, 경험한 것 등을 다시 구상하고 아이디어를 넣어서 표현한다.

아홉째, 사실적 표현이다. 9~11세에 사실인 묘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도식적 표현은 탈피하고 원근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입체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 노력한다. 물체의 사실에 접근하려고 사물의 형태의 특징은 물론 크기, 비례 등을 따지게 되고 보이는대로 그리려는 노력이 강해진다. 이 시기에 그림 그리기를 두려워하여 기피하는 아동이 생기기 쉽다.

열 번째, 관찰 표현이다. 있는 그대로 정밀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대로 그리되 자기의 개성적인 방법으로 그리는 것을 말한다.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그리는 정밀 묘사와 특징을 따라 재빨리 그리는 간략 묘사로 나 수 있다.

2. 초등학교 발달단계에 알맞은 질문 전략

루퍼트 번스타인(Berntein)³⁾의 사고도구를 활용한 미술과 발상지도 방안 연구에 관한 김동영(2013)의 연구에 따르면 예술에서의 창의성은 하나의 주어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발견하는 능력이 더 중요

3) 루퍼트 번스타인은 「생각의 탄생(1999)」의 공동저자이다.

하다는 것이다.

질문생성전략에 대한 우종수(2013)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질문 생성 전략은 학습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텍스트를 읽고 스스로 질문을 고안하여 답을 하는 학습 전략으로, 이는 학습자가 학습 자료와 지식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하고 해석하도록 해주는데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질문 생성 전략은 학급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질문을 요구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주의집중, 새로운 자료의 조직, 새로운 정보를 기존 지식에 통합시키는 등의 인지 활동을 유발하게 되므로 학생들의 이해를 촉진시킨다. 또한 질문 생성 전략은 학습자들이 자신을 점검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초인지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학습자 스스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질문을 생성해 나간다는 점에서의 주체성, 질문을 바꾸어 갖는 구조의 변화를 함의한 구조성, 그리고 기존의 것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질문을 구성해 나가려 한다는 점에서의 반성성을 교육의 특성으로 요약하면서 질문이 교육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양미경, 1992:106)

질문활동은 '질문과 반응이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발화 덩어리'라 정의하고 인지적으로 가지고 있던 의문이 발화된 질문과 그 질문에 관련된 일련의 반응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하였다.

Johnson & Pearson(1978)은 읽기란 역동적인 작용으로 독자는 자의적 해석 뿐 아니라 배경 지식에 따른 이해와 많은 추론을 하게 된다고 하다. 이러한 점에서 텍스트에 표현된 정보와 독자 사이의 기존 지식에서 나온 정보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세 가지 종류의 질문으로 범주화된다고 하다.

- ① 명시 질문(TE, textually explicit question)은 글에 답이 제시 되어 있는 질문이다.
- ② 암시 질문(TI, textually implicit question)은 답이 글에 있으나, 독자에게 문장과 단락을 통합하여 답을 구할 것을 요구한다. 즉 텍스트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답을 구하는 유형의 질문이다.
- ③ 함축 질문(SI, scriptually implicit question)은 독자가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틈을 메우는 것을 요구한다. 즉 글에 없는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질문이다.

Raphael의 QAR은 질문의 특징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① ‘바로 거기에’ (right there)질문: 답이 글 속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서 답은 글 속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옮기면 된다.
- ② ‘생각하고 찾기’ (think and search)질문: 이 질문은 글 속의 여러 내용들을 파악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해야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학습자는 글 속의 여러 사실들을 바탕으로 관계를 파악하고 추론하여야 답할 수 있다.
- ③ ‘내 힘으로’ (on my own)질문: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기억하거나 거기에 더하여 추론해야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Taba, H.는 독자의 수준과 관련 있는 질문의 전략을 다음 세 가지로 정의한다.

- ① 개념 형성 질문(Concept formation Question): 구별, 집단화, 범주화를 할 때 도와주는 ‘무엇(what)’에 관한 질문
- ② 해석 질문(Interpretation Question):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과 연결시켜 일반화 하고자 할 때, 또는 추론을 해야 할 때 하는 ‘왜(why)’에 대한 질문
- ③ 적용 질문(Application Question): 설명이나 예견을 요구하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what does it means)’에 한 질문

3. 시각적 문해력의 중요성

미술교육은 전통적 미술문화에 대한 전수의 역할과 함께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변화, 발전하는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창조적 수용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활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자기의 것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 능력은 전통적 입장에서 주로 읽기와 쓰기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어린이들은 문자적 정보 외에도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를 통한 복합적 정보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뉴 미디어 환경을 긍정적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능력은 이제 학교교육에서 필수적인 교육활동이 되었다. 미술교과 역시 이러한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시각

문화현상에 주목하여 학생들에게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시각문화에 대한 비판적 해석능력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Visual Literacy’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각적 문해력’으로 번역되는 이 용어는 시각문화로서 미술작품이 그 의미를 읽어서 해독해야 하는 텍스트로 간주되면서,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을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인 문해력(literacy)에 비유하면서 타났다. 독립되어 있던 각각의 예술장르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미술교육에서도 미술적인 학습활동만으로는 새로운 문화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다른 교과에서의 학습방법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시각적 문해력’은 국어 또는 사회교과에서 강조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수용한다.(이규선 외, 1994, p.434) 정보화 사회에서의 이미지 정보는 유용한 시각 정보를 감지하고 통찰하는 감식력과 분석하고 해석, 비판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미술교육에서 이와 같은 사고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시각언어 교육이 요구되며 나아가 시각 언어에 기초한 시각 문화 소양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이규선 외, 1994, p.464)

Ⅲ. 연구 결과 및 해석

1. 추상화에 질문 던지기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Johnson & Pearson(1978)이 제시한 세 가지 영역의 질문을 활용하여 추상화 작품을 감상하고 표현방법을 알아본 후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표현력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가. 교사 질문의 패턴화

1) 명시적 질문 - 보이는 대로 질문하기

- * 이 작품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점인가? 선인가? 면인가? 색깔인가?
- * 화가는 어떤 종이에 그림을 그렸을까?
- * 작품의 크기는 8절/4절지보다 클까? 작을까?
- * 어떤 종류의 색칠도구로 색을 칠했는가?
- * 그림 표면은 부드러워 보이는가? 꺼끌꺼끌해보이는가?
- * 직선과 곡선 중 어떤 선이 더 많이 그려졌는가?
- * 따뜻한 색이 많이 사용되었는가? 차가운 색이 많이 사용되었는가?
- * 어떤 모양의 도형들이 그려져 있는가?
- * 밝은 색이 많이 사용되었는가? 어두운 색이 많이 사용되었는가?

2) 암시적 질문 - 그림 속에서 의미 찾기

- * 그림에서 밝은 느낌이 드는가? 어두운 느낌이 드는가?
- * 화가는 이 그림을 그릴 때 기뻐했을까? 슬펐을까?
- *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짧게 걸렸을까?
- *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 * 그림에서 화가가 제일 먼저 그리기 시작한 쪽은 어느 쪽일까?
- * 그림에서 화가가 가장 나중에 완성한 쪽은 어느 부분일까?
- * 화가가 제일 먼저 칠한 색은 무엇일까?
- * 화가가 가장 나중에 칠한 색은 무엇일까?

- * 화가가 처음에 그리고자 한 것과 완성한 것은 같을까? 다를까?
- *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몇 번 연습그림을 그렸을까?
- * 화가는 이 그림을 한 번에 그렸을까?
- * 이 그림을 뒤집어서 보면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 * 이 그림을 뒤집어서 보면 제목을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
- * 이 그림은 실내에서 그려진 것일까? 실외에서 그려진 것일까?
- *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성격은 활발할까? 조용할까?

3) 함축적 질문 - 그림을 보고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에 제목을 무엇이라고 지을까?
-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을 어디에 전시할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을 누구에게 선물할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어떤 동화에 이 그림이 어울릴까?
- * 이 그림을 옷에 그린다면 어떤 계절에 입고 다닐까?
- * 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산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을 몇 월에 그렸을까?
-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에서 색을 어떻게 바꾸어 칠할 것인가?
-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에서 도형을 어떻게 바꾸어서 그릴 것인가?
-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에서 직선을 어떻게 곡선으로 바꿀 것인가?
-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에서 어느 부분을 뺄 것인가?
-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을 어떤 모양으로 잘라내어 전시할 것인가?
- * 나는 이 그림이 마음에 드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내가 이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에 어떤 색깔을 더할 것인가?
-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에 어떤 점을 어디에 찍을 것인가?
-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에 어떤 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
-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에 어떤 도형을 더해서 그릴 것인가?
-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 속에 어떤 감정을 나타내고 싶은가?
- * 내가 화가 냈을 때 이 그림을 그렸다면 어떻게 바꾸어 그리겠는가?
- * 내가 행복할 때 이 그림을 그렸다면 어떻게 바꾸어 그리겠는가?

나. 추상화 작품 선정

학생들에게 소개할 추상화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널리 알려진 작품 위주로 선정하여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추상화를 소개한다.

둘째, 조형요소가 뚜렷이 드러나는 추상화를 소개한다.

셋째, 차가운 추상과 뜨거운 추상을 골고루 소개한다.

넷째, 표현특징이 명확하게 들어나서 학생들이 표현기법을 따라하기 쉬운 추상화를 선정한다.

다섯째, 학생들에게서 다양한 의견을 불러모을 수 있는 추상화를 선정한다.

여섯째, 화가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추상화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들려줄 이야깃거리가 많도록 한다.

일곱째, 여러 시기의 추상화들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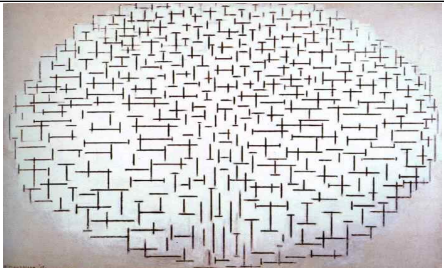
여덟째, 동일한 주제의 구상화들이 많은 작품을 소개하여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홉째, 표현기법이 단순한 작품들을 소개하여 학생들이 표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

열 번째, 아동 난화와 유사한 추상화를 소개하여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수업에 활용할 추상화 작품들과 지도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Ⅲ- 1> 추상화 작품과 지도요소

작품	작품명	작가	지도 요소
	검정과 흰색의 구성 No.10 :부두와 해양 (1915)	피에트 몬드리안 Piet Mondrian	근원적 형태로서 의 기호

	<p>Concepto Especial (1968)</p>	<p>루치오 폰타나 Lucio Fontana</p>	<p>공간 만들기</p>
	<p>인상 III (1911)</p>	<p>바실리 칸딘스키 WASSILY KANDINSKY</p>	<p>청각적 인상의 시각화</p>
	<p>종을 들고 있는 천사 (1939)</p>	<p>파울 클레 Paul Klee</p>	<p>선의 즐거움</p>

	<p>동시에 열린 창, 1부, 제2모티프</p>	<p>로베르 들로네 Robert Delaunay</p>	<p>색채의 자율성</p>
	<p>Vega (1957)</p>	<p>빅토르 바자렐리 Victor Vasarely</p>	<p>옵아트</p>

	<p>달팽이 (1952)</p>	<p>앙리 마티스 Henri Matisse</p>	<p>형태의 단순화</p>
	<p>흰색 위의 흰색 사각형 (1918)</p>	<p>카지미르 말레비치 Kazimir Malevich</p>	<p>색채의 근원, 흰색</p>
	<p>Number- 1 (1950)</p>	<p>잭슨 폴록 Jackson Pollock</p>	<p>액션 페인팅</p>

	주황과 노랑 (1956)	마크 로스코 Mark Rothko	색채의 대조와 대비
---	---------------------	-----------------------	------------------

2. 연구 참여자 분석

가. 실험집단 사전설문 분석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추상미술에 한 생각을 알아보기 하여 제주도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1개 반 2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조사에 응답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학생들이 미술교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질문했을 때 <표Ⅲ-2> 같은 답을 얻었다.

<표Ⅲ-2 사전설문지 1번 문항>

질문	응답	빈도(명)	백분율(%)
미술과목을 좋아 합니까?	매우 그렇다.	8	33.3
	그렇다.	8	33.3
	보통이다.	4	14.2
	아니다.	4	14.2
	전혀 아니다.	4	14.2

66.9%의 학생들이 미술과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28.4%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양상을 나타내었다.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는 원인으로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완성해야 한다는 압박감(2명), 발상의 어려움(3명),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는 부담감(2명)을 꼽았다.

미술 활동에 대한 선호도를 질문했을 때 <표Ⅲ-3> 같은 답을 얻었다.

<표Ⅱ-3> 사전설문지 2번 문항

질문	응답	빈도(명)	백분율(%)
다음 미술 활동 중에서 가장 흥미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환경 및 생활용품 살펴보기	12	42.8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기	11	39.2
	미술작품 감상하기	5	17.85

다른 영역에 비하여 작품 감상에 대한 선호도가 17.85%로 다소 비율을 보였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질문을 하였으며 학생들의 답변은 <표Ⅲ-4>와 같다.

<표Ⅱ-4> 사전설문지 3번 문항

질문	응답	빈도(명)	백분율(%)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	9	32.1
	아니다.	19	67.8

67.8%의 학생들이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고 답했다. 사실상 초등학교 미술 영역에 감상이 있고 표현영역과 연계하여 지도하는 방침을 두고 있지만 실제 수업 시간에는 발상 및 표현 위주로 지도를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미술 작품을 표현하는 활동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였고 학생들의 답변은 <표Ⅲ-5>와 같다.

<표Ⅲ-5> 사전설문지 4번 문항

질문	응답	빈도(명)	백분율(%)
미술과 표현활동을 좋아합니까?	매우 그렇다.	6	21.4
	그렇다.	8	33.3
	보통이다.	6	21.4
	아니다.	6	21.4
	전혀 아니다.	3	10.7

54.7%의 학생들이 미술과 표현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표현활동을 좋아하는 이유로는 ‘재미가 있다.’, ‘자기 손으로 만드는 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낀다.’, ‘잘 만들었다고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다.’, ‘마음이 편해진다.’, ‘집중할 수 있다’를 들었다. 표현활동을 싫어하는 이유로는 완벽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느낌에 대한 부담(4명)을 가장 많이 들었으며,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낸 학생들이 있었다.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활동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였고 학생들의 답변은 <표Ⅲ-6>와 같다.

<표Ⅲ-6> 사전설문지 5번 문항

질문	응답	빈도(명)	백분율(%)
미술과 감상활동을 좋아합니까?	매우 그렇다.	2	7.1
	그렇다.	10	35.7
	보통이다.	10	35.7
	아니다.	6	21.4
	전혀 아니다.	1	3.5

42.8%의 학생들이 감상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24.9%의 학생들은 감상활동을 좋아하지 않았다. 감상활동을 좋아하는 이유로 ‘감동적이다.’, ‘미술작품의 색 조화가 좋다.’, ‘재미있다.’, ‘그림을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 ‘미술작품이 아름답다.’, ‘옛날의 기록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느낌이 든다.’라고 답했다. 감상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로는 ‘싫다.’, ‘지루하다.’, ‘미술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다음은 형식과 주제가 확연히 다른 두 작품을 학생들에게 보여준 후 선호하는 작품을 선택하고 이유를 쓰게 하였다. 학생들의 답변은 <표Ⅲ-7>와 같다.

<표Ⅲ-7> 사전설문지 6번 문항

	작품 1	작품 2
작품명	 <p><그림Ⅲ-1> 고대의 소리, 파울 클레, 1925</p>	 <p><그림Ⅲ-2>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요하네스 베르메르, 1665</p>

선호도	21명(75%)	7명(25%)
선호하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색으로 이루어졌다.(5명) - 아름답다. - 색의 조합이 좋다. -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색깔만 모아져있어서 재미있다. - 단순해도 나의 눈길을 끈다. - 색깔의 변화가 흥미롭다. - 눈에 확 띈다. - 정확한 모양은 없지만 멋있다. - 그림에서 빛이 나는 것 같다. - 미로 같아서 재미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인공이 밝은 색이고 배경이 검은 색이어서 주인공이 두드러진다. - 빛을 받는 쪽과 어두운 쪽이 비교되어서 흥미롭다. - 정교하고 아름답다. - 색이 어지럽지 않다.(2명) - 이유는 모르지만 끌린다. -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궁금하다. - 명확한 그림이어서 좋다.

75%의 학생들이 파울 클레의 ‘고대의 소리’가 보여주는 색감에 흥미를 가졌다. 베르메르의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를 선택한 학생들은 파울 클레의 그림에 대해 색이 어지러워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다.

학생들에게 ‘추상화’라는 단어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응답은 <표Ⅲ-8>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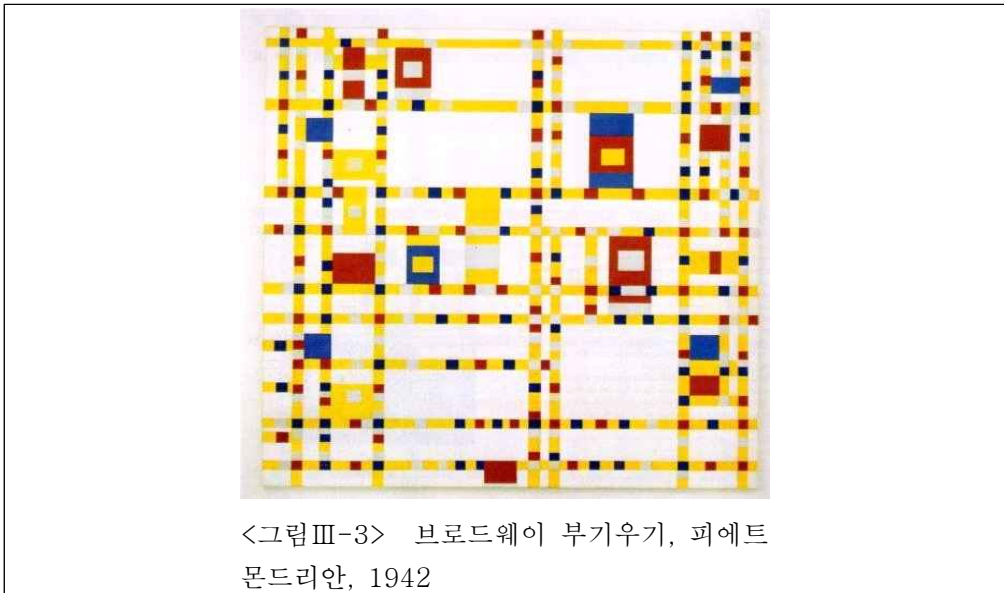
<표Ⅲ-8> 사전설문지 7번 문항

질문	응답	빈도(명)	백분율(%)
‘추상화’라는 단어를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	20	71.4
	아니다.	8	28.5

71.4%의 학생들이 추상화라는 단어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추상화의 뜻을 안다고 응답한 학생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추상화 작품을 제시한 후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 질문을 적어보도록 하였다. 응답 결과를 <표Ⅲ-9>와 같다.

<표Ⅲ-9> 사전 설문지 8번 문항



<그림Ⅲ-3> 브로드웨이 부기우기, 피에트 몬드리안, 1942

- 미로 같고 도시를 표현한 것 같다.
- 주차장 같다. 사각형 안에 자동차같이 생긴 것이 있기 때문이다.
- 조금 어지럽고 반대되는 색이 있어서 눈에 확 띈다.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 같다.
- 네모 친구들과 같이 길을 따라 노는 것 같아 보기가 좋다.
- 여러 가지 침대가 있고, 노란 색깔에 벽들이 어지럽게 쌓여있다.
- 여러 가지 색깔의 문과 창문이 있는 것 같다.
- 어지러운데 색이 조화롭다.
- 어지럽다.
- 큰 네모는 문 같이 보이고 미로를 보는 것 같기도 하다.
- 미로게임 같기도 하고 공사장 같기도 하고 레고 같다.
- 미로 같은 복잡함이 재미있다.
- 도로 같다.

- 머리가 너무 어지럽다.
- 뒤죽박죽이어서 싫다.
- 마크가 생각나고 형식적인 것과 순차적인 것이 생각난다.
- 기차레인 같고 조립하는 것 같다.
- 뱀이 미로같이 지나가다가 꼬인 것 같다.
- 미로처럼 뒤엎켜서 머릿속이 어질어질하고 그림에 무슨 뜻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 어떤 아이가 문을 찾아나가는 그림같다.
- 이 그림은 사각형 그림에 여러 가지 색을 넣은 것 같다.
- 자동차가 미로를 지나가고 있다.
- 미로 같고, 재미있다.
- 여러 색깔이 있어서 흥미롭다.
- 컴퓨터 본체를 뜯어놓은 것 같다.
- 미로 같다.

3. 수업의 실제

표현활동을 할 때 자신이 표현할 주제와 표현기법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는 과정은 작품의 완성도와 창의성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수업과정안은 총 10회기로 구성하였으며, 각각 80분으로 구성하여 발상 및 표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각 회기동안 학생들은 추상화 작품을 감상 한 후 교사가 지도한 패턴에 따라 작품에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또는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한다. 그 후 동일한 주제 또는 기법으로 자신의 작품을 표현하는 활동을 하였다.

수업 동기유발 시 감상한 추상화 작품의 주제 또는 기법 중 한 가지를 따르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까닭은 학생의 성향에 따라 추상화에 나타나는 일정하지 않은 패턴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작품을 주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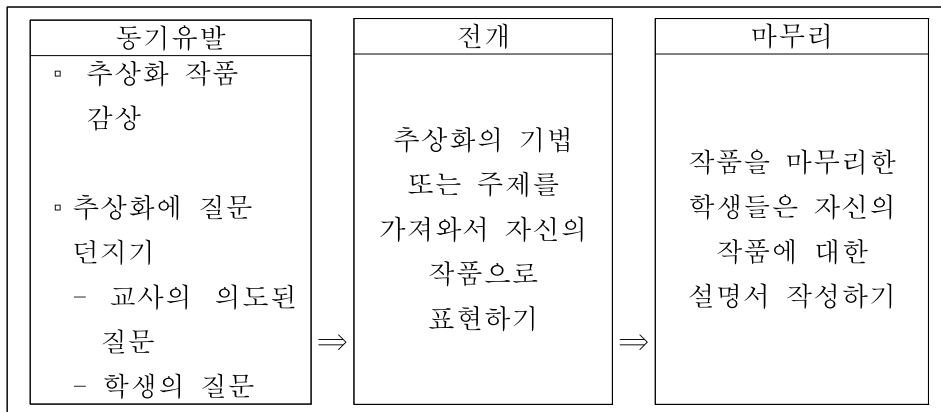
시간동안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제약에 따른 결과이지 학생의 표현능력과 무관하다는 점을 지도하여 미술과에 대한 고학년 특유의 강박관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였다.

이 수업에서 중요한 점은 동기유발 및 학생들의 질문의 대상이 되는 작품은 추상화이지만, 학생들의 결과물이 반드시 추상화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표현력 신장’에 있으므로 학생들이 추상화를 배웠다고 하여 반드시 결과물이 추상화로 나와야 한다는 제약은 없다. 이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전조사 결과 추상화 특유의 난해함과 넓은 해석 범위를 선호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이자 발상의 걸림돌을 최대한 낮추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발상과 표현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작품 완성 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근거는 학생들이 작성한 작품설명서에 나와 있어야 한다.

학생작품에 대한 감상결과를 토의하는 과정을 가져서 작품제작자와 관람자가 연결되는 경험을 해보고, 한 작품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때, 다른 학생의 작품을 비판하거나 칭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작품을 감상한 후 관람자 내부에서 어떤 울림이 전해지는지, 조형요소에서 받은 느낌은 무엇인지를 중점으로 대화하도록 지도한다.

수업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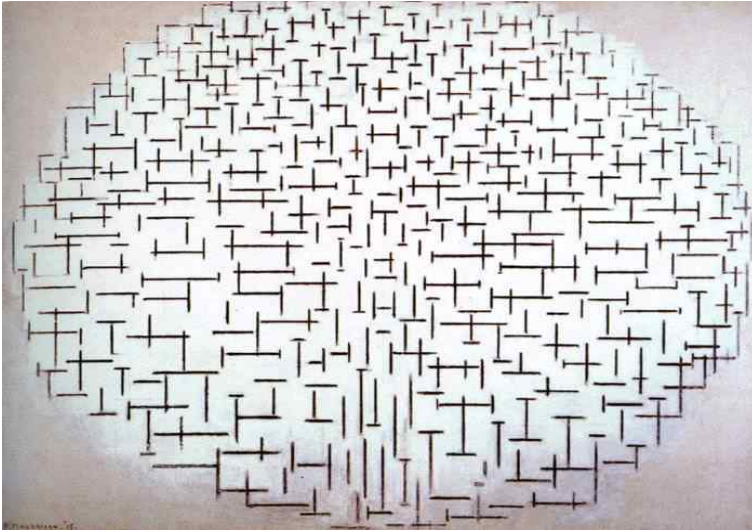
<표Ⅲ-10> 수업의 구성



가. 수업의 실제

1) 제1기: 추상화의 뜻 알아보기

가) 활용작품



<그림Ⅲ-4> 검정과 흰색의 구성 No.10:부두와 해양, 피에트 몬드리안, 1915

나) 학습목표

- 추상화의 뜻을 알고 설명할 수 있다.

다) 질문

몬드리안은 ‘검정과 회색의 구성 No.10 : 부두와 해양’에서 파도의 변덕스러운 리듬을 가장 핵심적이며 불변하는 근원적 형태인 +, -라는 기호로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궁극적으로 입체주의에서 파생된 것이고 또한 입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취했던 최초의 시도이기도 한다. ‘구성 No.10 : 부두와 해양’의 화면은 +, -의 기호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에너지의 장으로 변하였다.(김현화, 1999, 20세기 미술사, p.83) 학생들에게 몬드리안의 작품을 보여준 후 다음의 질문을 던진다.

- * 이 작품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점인가? 선인가? 면인가? 색깔인가?
직선과 곡선 중 어떤 선이 더 많이 그려졌는가?

- * 그림에서 화가가 제일 먼저 그리기 시작한 쪽은 어느 쪽일까?
- * 그림에서 화가가 가장 나중에 완성한 쪽은 어느 부분일까?
- * 나는 이 그림이 마음에 드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내가 이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작품 이외에 몬드리안의 ‘회색 나무’(1911)를 감상하고 자연물이 근원적 형태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1차시이기 때문에 여러 작품에 학생들을 노출시켜서 표현방법의 특이점을 생각해보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그림Ⅲ-5> 피에트 몬드리안, 회색 나무, 1911

라) 수업과정안



<표Ⅲ-11 제1기 수업과정안>

주제	추상화의 뜻 알아보기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상화의 뜻을 알고 설명할 수 있다. 			
단계	지도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동기 유발	<p>작품 감상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에트 몬드리안의 '검정과 회색의 구성 No.10 : 부두와 해양' 감상하기 작품에 질문 던지기 <p>* 이 작품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점인가? 선인가? 면인가? 색깔인가? 직선과 곡선 중 어떤 선이 더 많이 그려졌는가?</p> <p>* 그림에서 화가가 제일 먼저 그리기 시작한 쪽은 어느 쪽일까?</p> <p>* 그림에서 화가가 가장 나중에 완성한 쪽은 어느 부분일까?</p> <p>* 나는 이 그림이 마음에 드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p> <p>* 내가 이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p>	20'	<p>구상화에 익숙한 학생들에게는 낯선 형식의 그림이므로 다양한 반응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p>
	<p>학습 목표 확인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상화의 뜻을 알아봅시다. 		

단계	지도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전개	추상화의 뜻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에트 몬드리안의 ‘나무’연작을 살펴보며 동일한 주제의 작품에서 달라진 점 찾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과 선이 단순한 선으로 변해갔다. - 나무에서 생략된 부분이 생겼다. - 처음 그림에서는 나무를 그렸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마지막 그림에서는 주제를 알아보기 어렵다. • ‘추상화’의 뜻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나 자연, 물체에서 기본적인 선과 면, 색을 찾아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추상화라고 한다.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상화의 뜻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한자 抽象에서 의미를 설명한다.
	구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몬드리안의 ‘검정과 회색의 구성 No.10 : 부두와 해양’을 구상화로 표현하기 위한 발상하기 	40'	
	표현하기	<p>몬드리안의 작품에서 기호화된 바다의 모습을 제주 앞 바다의 모습으로 그려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절지에 그리기 - 채색 도구는 크레파스와 파스텔 중 한 가지를 선택하기 		
정리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 전원의 작품을 칠판 앞에 전시하고 몬드리안의 작품이 어떻게 구상화되었는지 감상하기 • 친구의 작품에 대해 의견 교환하기 	10'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면에서 입체로 공간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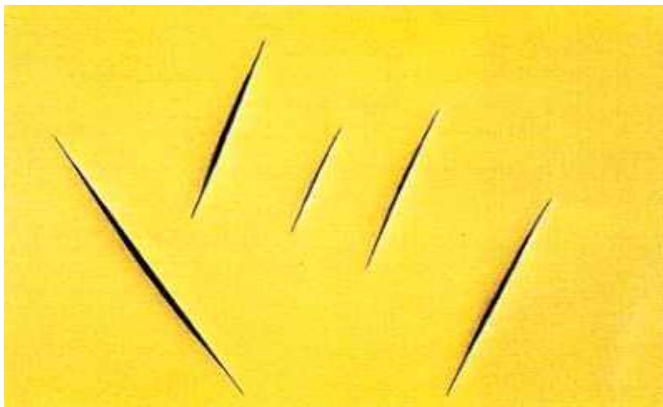
마) 수업 결과물

<표Ⅲ-12> 제1기 수업결과물

	
<p><그림Ⅲ-6> 바다의 빛 제주바다의 4계절을 담고 있는 그림이다. 파도의 모습을 삼각형 패턴으로 단순화하여 파도치는 바다를 묘사하였다. 수채화와 색종이를 사용하여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표현하였다.</p>	<p><그림Ⅲ-7> 돌고래와 나 색종이를 주재료로 하여 바다와 돌고래, 아이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파도치는 바다는 색종이를 손과 가위로 잘라내어 나타내었다. 학교 근처 바다에서 돌고래를 보고 싶은 소망을 담았다.</p>

2) 제2기: 공간 만들기

가) 활용작품



<그림Ⅲ-8> 루치아노 폰타나, Concepto Especial, 1968

나) 학습목표

- 평면작품을 입체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 질문

루치아노 폰타나의 Concepto Especial은 2차원 평면 공간이 3차원을 가지게 되는 순간을 담은 작품이다. 학생들은 이 차시의 활동을 위해 평면 구상화를 제작하여 이를 3차원의 입체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활동을 하게 된다. 학생들은 루치아노 폰타나의 작품을 보며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활동을 한 후 표현활동을 한다.

- * 화가는 어떤 종이에 그림을 그렸을까?
- * 그림 표면은 부드러워 보이는가? 꺼끌꺼끌해보이는가?
- *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짧게 걸렸을까?
- *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을 어디에 전시할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을 누구에게 선물할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 수업과정안


<표Ⅲ-13> 제2기 수업과정안

주제	공간 만들기			
학습 목표	◦ 평면작품을 입체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단계	지도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동기 유발	작품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치아노 폰타나의 'Concepto Especial' 감상하기 • 작품에 질문 던지기 * 화가는 어떤 종이에 그림을 그렸을까? * 그림 표면은 부드러워 보이는가? 꺼끌꺼끌해보이는가? 	20'	

단계	지도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전개	학습 목표 확인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을 어디에 전시할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을 누구에게 선물할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p>◦ 평면작품을 입체작품으로 표현하여 봅시다.</p>		
	구상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자유주제로 2차원 작품 구상하기 	20'	
	표현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주제로 2차원 작품 표현하기 • 2차원 작품을 3차원으로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가위로 오려내어 평면위에 세우기 - 같은 색을 칠한 부분만 가위로 오려내어 평면 위에 세우기 	30'	커터 칼은 사용하지 않는다.
정리	감상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 전원의 작품을 칠판 앞에 전시하고 루치아노 폰타나의 작품 아이디어를 어떻게 응용하였는지 확인하기 • 친구의 작품에 대해 의견 교환하기 	10'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를 선과 색으로 표현하기 		

마) 수업 결과물

<표Ⅲ-14 제2기 수업결과물>

	
<p><그림Ⅲ-9> 방학 때 내가 했던 일 방학동안 낮잠을 잤던 경험을 떠올리며 그림을 그린 후 자신의 모습을 두각시키기 위해 가위로 잘라서 3차원으로 표현하였다.</p>	<p><그림Ⅲ-10> 내가 미래에 살고 싶은 집 자신이 지금 살고 싶은 집을 디자인한 후 평면에 그렸다. 그리고 가위로 오려내어 주제만 3차원으로 표현했다.</p>

3) 3기: 소리를 선과 색으로 표현하기
가) 활용작품



<그림Ⅲ-11> 바실리 칸딘스키, 인상Ⅲ, 1911

나) 학습목표

- 소리를 선과 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 질문

바실리 칸딘스키는 음악적 요소를 화폭 위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추상회화의 큰 흐름을 맡고 있는 그의 작품은 추상화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소개되는 그림이기도 하다. 칸딘스키는 회화의 시각적인 리듬을 청각적인 리듬으로 전환시키고 색채의 조화를 음악의 순수화음과 연결시켰다.(김현화, 1999, p.39) 학생들에게 이 음악적 회화를 들려주며 다음의 질문을 던졌다.

- * 직선과 곡선 중 어떤 선이 더 많이 그려졌는가?
- * 따뜻한 색이 많이 사용되었는가? 차가운 색이 많이 사용되었는가?
- * 화가가 처음에 그리고자 한 것과 완성한 것은 같을까? 다를까?
- *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몇 번 연습그림을 그렸을까?
-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에서 어느 부분을 뺄 것인가?
-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을 어떤 모양으로 잘라내어 전시할 것인가?

라) 수업과정안

<표Ⅲ-15> 제3기 수업과정안

주제	소리를 선과 색으로 표현하기			
학습 목표	◦ 소리를 선과 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단계	지도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동기 유발	작품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실리 칸딘스키의 ‘인상Ⅱ’ 감상하기 • 작품에 질문 던지기 * 직선과 곡선 중 어떤 선이 더 많이 그려졌는가? * 따뜻한 색이 많이 사용되었는가? 차가운 색이 많이 사용되었는가? * 화가가 처음에 그리고자 한 것과 완성한 것은 같을까? 다를까? 	20'	

단계	지도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목표 확인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몇 번 연습그림을 그렸을까?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에서 어느 부분을 뺄 것인가?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을 어떤 모양으로 잘라내어 전시할 것인가? <p>음악을 듣고 소리를 선과 색으로 그려볼 수 있다.</p>		
전개	구상 하기 표현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가 무엇인지 의견 나누기 - 음악을 듣고 떠오르는 장면에 대해 발표하기 • 음악을 다시 들으며 마음 속 풍경을 선과 색으로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절지에 그리기 - 크레파스, 파스텔로 표현하기 	50'	
정리	감상 하기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기 • 친구의 작품에 대해 의견 교환하기 <p>• 선으로만 그림 그리기</p>	10'	

마) 수업 결과물

<표Ⅲ-16> 제3기 수업결과물

<p><그림Ⅲ-12> 알록달록한 노래 음악의 선율과 리듬을 다양한 색과 선의 모양으로 표현했다. 수채화와 크레파스, 색종이 등 여러 가지 재료를 함께 사용했다.</p>	<p><그림Ⅲ-13> 천국과 평화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천국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계단과 구름을 표현했고, 하늘만 채색을 하여 구름의 존재를 부각시켰다.</p>

4) 제4기: 선으로만 그림 그리기
가) 활용작품



<그림Ⅲ-14> 파울 클레, 종을 달고 있는 천사, 1939

나) 학습목표

- 선으로만 주제를 표현할 수 있다.

다) 질문

파울 클레는 여러 점의 천사 그림을 남겼다. 선으로만 구성되어있는 작품도 있고 채색된 작품도 있다. 그 중에서 ‘종을 달고 있는 천사’는 마분지 종이에 연필로 그려진 작품으로서, 장난기 어린 천사와 아이의 그림처럼 그려진 종을 위트있게 표현했다. 이 작품을 감상한 후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 * 이 작품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점인가? 선인가? 면인가? 색깔인가?
- * 화가는 이 그림을 그릴 때 기뻐했을까? 슬펐을까?
- *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성격은 활발할까? 조용할까?
-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을 누구에게 선물할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어떤 동화에 이 그림이 어울릴까?

라) 수업과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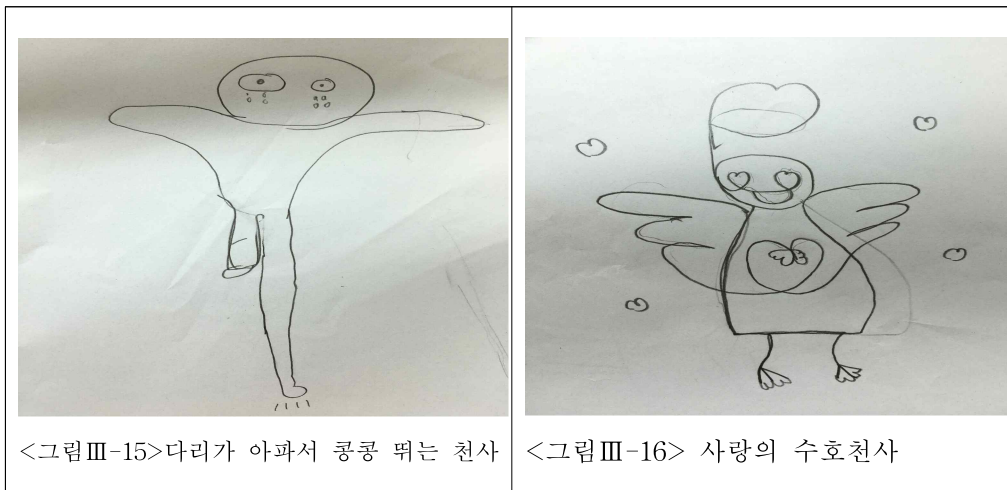
<표Ⅲ-17> 제4기 수업과정안

주제	선으로 표현하기			
학습 목표	◦ 선으로만 주제를 표현할 수 있다.			
단계	지도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동기 유발	작품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울 클레의 ‘종을 달고 있는 천사’를 감상하기 • 작품에 질문 던지기 * 이 작품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점인가? 선인가? 면인가? 색깔인가? * 화가는 이 그림을 그릴 때 기뻐했을까? 슬펐을까? *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성격은 활발할까? 조용할까?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을 누구에게 선물할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어떤 동화에 이 그림이 어울릴까? 	20	- ‘종을 달고 있는 천사’는 추상화라고 보기에 어려우나, 선이라는 조형요소를 설명하기 위해 활용한다.
	학습목표 확인하기	선으로만 주제를 그려 봅시다.		

단계	지도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전개	구상하기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으로만 그려진 나만의 천사 구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표현하고 싶은 천사의 표정 생각하기 - 내가 표현하고 싶은 천사의 동작 생각하기 - 내가 표현하고 싶은 천사의 성격 생각하기 · 나만의 천사를 선으로만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 종이에 그리기 - 연필로 그리기 	50'	
정리	감상하기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기 · 친구의 작품에 대해 의견 교환하기 · 색으로 학교 풍경 표현하기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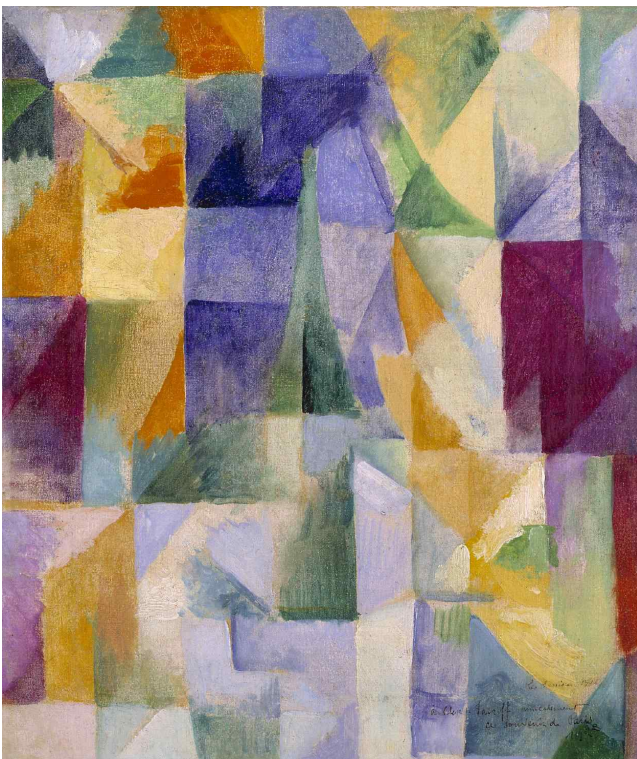
마) 수업 결과물

<표Ⅲ-18 제4기 수업결과물>



한 쪽 다리를 다쳐서 불편하게 생활했던 경험을 그림에 담았다.	‘사랑’을 테마로 자신을 보호하는 수호천사를 그렸다.
------------------------------------	-------------------------------

5) 제5기: 색으로 학교 풍경 표현하기
가) 활용작품



<그림Ⅲ-17> 로베로 들로네, 동시에 열린 창, 1부, 제2모티브

나) 학습목표

- 색으로 학교풍경을 표현할 수 있다.

나) 질문

로베로 들로네는 광선이 모든 자연을 활기있게 만든다고 믿었으며, 비물질적이

고 끊임없이 동요하고 움직이는 광선을 순수한 회화요소, 특히 색채의 대조와 병렬에 의해 표현하였다.(김현화, 1999, p.87) 들로네의 작품을 소개하며 학생들이 도식적인 선에 의한 형태에서 벗어나 직선과 색채만으로도 대상을 묘사할 수 있다는 점을 지도한다. 들로네에 작품에 다음의 질문들을 던져본다.

- * 그림 표면은 부드러워 보이는가? 꺼끌꺼끌해보이는가?
- * 밝은 색이 많이 사용되었는가? 어두운 색이 많이 사용되었는가?
- * 화가가 제일 먼저 칠한 색은 무엇일까?
- * 화가가 가장 나중에 칠한 색은 무엇일까?
-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을 몇 월에 그렸을까?
-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에서 색을 어떻게 바꾸어 칠할 것인가?

2) 수업과정안



<표Ⅱ-19> 제5기 수업과정안

주제	색으로 학교풍경 표현하기			
학습 목표	◦ 색으로 학교풍경을 표현할 수 있다.			
단계	지도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동기 유발	작품 감상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베로 들로네의 ‘동시에 열린 창, 1부, 제2모티브’를 감상하기 • 작품에 질문 던지기 * 그림 표면은 부드러워 보이는가? 꺼끌꺼끌해보이는가? * 밝은 색이 많이 사용되었는가? 어두운 색이 많이 사용되었는가? * 화가가 제일 먼저 칠한 색은 무엇일까? * 화가가 가장 나중에 칠한 색은 무엇일까?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을 몇 월에 그렸을까?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에서 색을 어떻게 바꾸어 칠할 것인가? 	20'	
	학습목표 확인하기	색으로 학교풍경을 그려봅시다.		

단계	지도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전개	구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으로 그린 학교 구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느끼는 학교의 색깔 정하기 - 재료 선택하기 (파스텔, 수채물감, 크레파스, 색연필) 	50'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으로 학교풍경을 그리기 		
정리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기 · 친구의 작품에 대해 의견 교환하기 	10'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아트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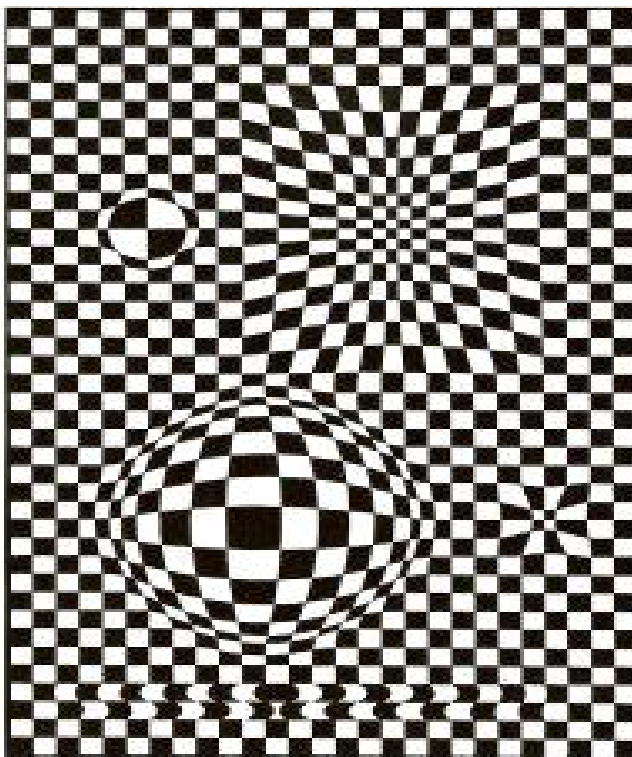
마) 수업 결과물

<표Ⅲ-20> 제5기 수업결과물

	
<p><그림Ⅲ-18> 포근한 나의 학교</p>	<p><그림Ⅲ-19> 학교 정원</p>

<p>노란색을 써서 학교가 가지는 따뜻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파란색은 하늘, 초록색은 학교의 나무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빨간색은 노을을 나타낸 색이다.</p>	<p>햇볕이 쨍쨍 비치는 날의 정원을 표현했다. 빨간색으로 빛과 열기를 나타냈고, 초록색으로 학교 정원의 나무를 담았다.</p>
---	---

6) 제6기: 옵아트 그리기
가) 활동작품



<그림Ⅲ-20> 빅토르 바자렐리, Vega

나) 학습목표

- 모눈종이 조각으로 세상을 표현할 수 있다.

다) 질문

바자렐리는 추상형태를 광학적 현상을 축소시켰다. 그는 시각의 환영에 근감을 두고 있는 자신의 회화가 움직임과 비물질적 성격을 갖고 있는 면에서 기체의 운동법칙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작품을 '시네마틱 조형'(la plastique cinematique)라고 정의하였고 회화적 행위를 가장적 공간성으로 승화시키고자 하였다.(김현화, 1999, p.320) 바자렐리의 작품에 다음의 질문을 던지며 접근하도록 한다.

- * 이 그림을 뒤집어서 보면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 * 이 그림을 뒤집어서 보면 제목을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
- * 이 그림을 옷에 그린다면 어떤 계절에 입고 다닐까?

라) 수업과정안

<표Ⅲ-21> 제6기 수업과정안

주제	모눈종이 조각으로 표현하기			
학습 목표	◦ 모눈종이 조각으로 세상을 표현할 수 있다.			
단계	지도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동기 유발	작품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토르 바르렐리의 'Vega' 감상하기 • 작품에 질문 던지기 * 이 그림을 뒤집어서 보면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 이 그림을 뒤집어서 보면 제목을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 * 이 그림을 옷에 그린다면 어떤 계절에 입고 다닐까? 	20'	
	학습 목표 확인하기	모눈종이 조각으로 세상을 표현해봅시다.		

전개	구상하기	· 모눈종이 조각으로 세상 구상하기 - 어안렌즈로 사진 관찰하기 - 옵아트 작품 감상하기	50'	
	표현하기	· 모눈종이 조각으로 세상 표현하기		
정리	감상하기	·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기 · 친구의 작품에 대해 의견 교환하기	10'	
	차시 예고	· 모양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표현하기		

마) 수업 결과물

<표Ⅲ-22> 제6기 수업결과물

	
<p><그림Ⅲ-21> 흐트러지는 빛</p>	<p><그림Ⅲ-22> 나(I)</p>
<p>여름철 분수대에 나타나는 무지개를 여러 가지 색깔의 동일한 사각형을 분산시켜서 표현했다.</p>	<p>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한 작품이다. 'I'를 중심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색을 배치하여 지금의 나를 표현하였다.</p>

7)제7기: 모양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표현하기

가) 활동작품



<그림Ⅲ-23> 앙리 마티스, 달팽이, 1952

나) 학습목표

- 여러 가지 물체의 모양을 단순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다) 질문

앙리 마티스는 자연적 대상에 의존하면서 색감과 형태를 새롭고 강렬하게 재창조하였다. 반대색의 강한 대비를 사용하며 야수파를 이끌어온 마티스는 1940년대 색종이를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었다. ‘달팽이’는 달팽이집을 서로 다른 크기와 색감의 색종이로 단순하게 나열하여 표현한 작품으로 마티스의 작품 중 가장 추상적이라는 평을 듣기도 한다.

학생들에게 친숙한 재료인 색종이를 사용하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소재를 표현하게 하면서 구체적인 표현과 섬세한 선에 부담감을 가지는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묘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구상과 표현활동 전에 다음의 질문들을 생각하며 마티스의 그림을 바라보게 된다.

- * 어떤 모양의 도형들이 그려져있는가?
- * 밝은 색이 많이 사용되었는가? 어두운 색이 많이 사용되었는가?
- * 그림에서 화가가 제일 먼저 그리기 시작한 쪽은 어느 쪽일까?
- * 그림에서 화가가 가장 나중에 완성한 쪽은 어느 부분일까?
-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에서 어느 부분을 뺄 것인가?
-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을 어떤 모양으로 잘라내어 전시할 것인가?

라) 수업과정안

<표Ⅲ-23 제7기 수업과정안>

주제	모양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표현하기			
학습 목표	◦ 여러 가지 물체의 모양을 단순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단계	지도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동기 유발	작품 감상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앙리 마티스의 ‘달팽이’ 감상하기 • 작품에 질문 던지기 * 어떤 모양의 도형들이 그려져있는가? * 밝은 색이 많이 사용되었는가? 어두운 색이 많이 사용되었는가? * 그림에서 화가가 제일 먼저 그리기 시작한 쪽은 어느 쪽일까? * 그림에서 화가가 가장 나중에 완성한 쪽은 어느 부분일까?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에서 어느 부분을 뺄 것인가?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을 어떤 모양으로 잘라 전시할 것인가? 	20'	
	학습 목표	여러 가지 물체의 모양을 단순하게 표현해봅시다.		

단계	지도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전개	구상하기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하고 싶은 자연물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충, 식물, 돌 등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상 선정하기 -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상의 사진 관찰하기 - 사진보며 선을 단순하게 따라 그려보기 - 따라 그린 선에서 3개의 선 없애기 · 표현하고 싶은 대상을 단순하게 그린 선과 면을 따라 색종이 붙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번 사용한 색은 다시 사용하지 않기 - 면을 표현할 경우 다양한 크기로 색종이 자르기 	50'	
정리	감상하기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기 · 친구의 작품에 대해 의견 교환하기 · 다양한 '흰색' 표현하기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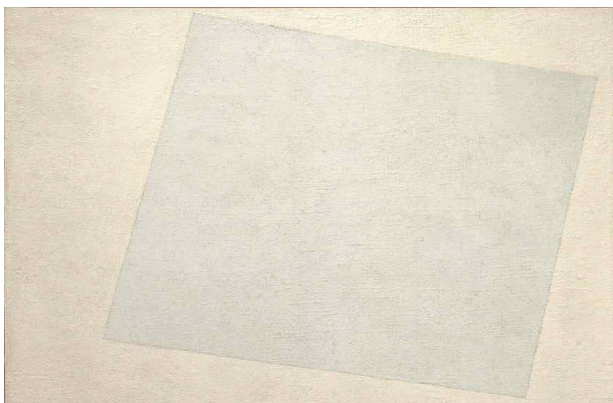
마) 수업 결과물

<표Ⅲ-24 제7기 수업결과물>

	
<p><그림Ⅲ-24> 기린</p>	<p><그림Ⅲ-25> 따뜻한 눈과 차가운 눈 사이의 꽃 2송이</p>
<p>색종이를 이용하여 나무 위의 풀을 뜯어먹는 기린을 표현했다. 기린의 무늬를 인상적으로 보고 그 색으로 기린 전체를 나타냈다고 한다.</p>	<p>파란색과 빨간색은 겨울철에 내리는 눈이 다른 계절에 내리면 어떤 색이 될지 궁금하다는 의문점에서 출발하여 표현한 것이다.</p>

8) 제8기: 다양한 ‘흰색’ 표현하기

가) 활동작품



<그림Ⅲ-26> 카지미르 말레비치, 흰색 사각형 위의 흰색 사각형, 1918

나) 학습목표

◦ 다양한 ‘흰색’을 표현할 수 있다.

다) 질문

말레비치 회화에서 색채는 회화의 여러 요소들과 상호의존해서 작용하지만 하나의 독립된 단위이다. 색채는 미학적 규범, 경험, 유행을 따르지 않고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독립된 철학적 총체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말레비치는 색채에 대한 모든 관심을 모든 색채의 근원인 흰색으로 결론짓는다.(김현화, 1999, p.123)

학생들이 오직 흰색만을 사용하여 색채의 한계성을 넘어 표현해보는 활동을 한다면 자신의 생각을 묘사하는 범위가 오히려 넓어질 것이다. 학생들은 말레비치의 회화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게 된다.

- * 화가는 어떤 종이에 그림을 그렸을까?
- * 작품의 크기는 4절지보다 클까? 작을까?
-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에서 도형을 어떻게 바꾸어서 그릴 것인가?
-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에서 직선을 어떻게 곡선으로 바꿀 것인가?

라) 수업과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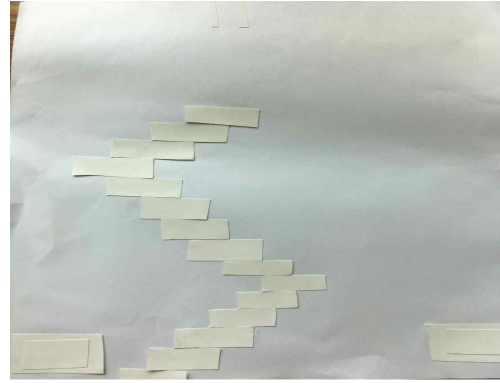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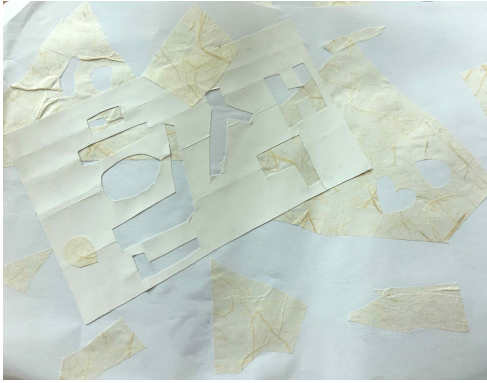
<표Ⅱ-25> 제8기 수업과정안

주제	다양한 흰색 표현하기			
학습 목표	◦ 여러 가지 흰색으로 주제를 표현할 수 있다.			
단계	지도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동기 유발	작품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비치 ‘흰색 사각형 위의 흰색’ 감상하기 • 작품에 질문 던지기 * 화가는 어떤 종이에 그림을 그렸을까? * 작품의 크기는 4절지보다 클까? 작을까? *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에서 도형을 어떻게 바꾸어서 그릴 것인가? 	20'	

단계	지도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목표	<p>* 내가 화가라면 이 그림에서 직선을 어떻게 곡선으로 바꿀 것인가?</p> <p>여러 가지 흰색으로 그림을 그려봅시다.</p>		
전개	구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흰색 종이 겹쳐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질감의 흰색 종이를 겹쳐보며 구상하기 - 내가 표현하고 싶은 질감의 흰색 종이 고르기 	50'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흰색의 종이를 겹쳐서 붙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붙이기 - 작품 설명서 붙이기 		
정리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기 · 친구의 작품에 대해 의견 교환하기 	10'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션페인팅 하기 		

마) 수업 결과물

<표Ⅲ-26> 제8기 수업결과물

	
<p><그림Ⅲ-27> 그리운 무한의 계단 그리운 가족이 있는 하늘로 갈 수 있는 계단을 표현했다. ‘무한’이라는 표현은 닿고 싶어도 닿을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한 제목이다.</p>	<p><그림Ⅲ-28> 흰색 흰색으로 흰색을 표현했다는 것을 글자로 나타냈다. 구체적인 대상없이 마음 가는대로 붙인 작품이라고 한다.</p>

9) 제9기: 액션페인팅 하기

가) 활동작품



<그림Ⅲ-29> 잭슨 폴락, Number-1, 1950

나) 학습목표

- 몸을 움직이며 액션페인팅을 할 수 있다.

다) 질문

잭슨 폴락이 추상표현주의의 발전에 미친 결정적 영향은, 캔버스를 이미지가 탄생되는 무한한 장(場)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이다. 회화의 공간은 화가, 물감, 캔버스 간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신체의 제스처에 의해 계속적으로 뿌려지는 물감의 분출은 화면을 바탕과 형상이 구별되지 않는 복합적인 세계로 만든다.(김현화, 1999, p.217) 일반적으로 8~4절 도화지 안에 그림을 그리는 것에 익숙한 초등학교생들에게 전지 이상의 캔버스를 내어준다면 일상적인 표현을 넘어서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표현력에 대한 자기검열을 낮추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생들은 잭슨 폴락의 그림에 다음의 질문을 던지게 된다.

- * 화가는 어떤 종이에 그림을 그렸을까?
- * 작품의 크기는 4절지보다 클까? 작을까?
- * 어떤 종류의 색칠도구로 색을 칠했는가?
- * 이 그림은 실내에서 그려진 것일까? 실외에서 그려진 것일까?
- *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성격은 활발할까? 조용할까?
- * 내가 화가 났을 때 이 그림을 그렸다면 어떻게 바꾸어 그리겠는가?
- * 내가 행복할 때 이 그림을 그렸다면 어떻게 바꾸어 그리겠는가?

다) 수업과정안

<표Ⅲ-27> 제9기 수업과정안

주제	몸을 움직이며 액션페인팅 하기			
학습 목표	◦ 몸을 움직이며 액션페인팅을 할 수 있다.			
단계	지도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동기 유발	작품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잭슨 폴락의 'Number-1' 감상하기 • 작품에 질문 던지기 * 화가는 어떤 종이에 그림을 그렸을까? * 작품의 크기는 4절지보다 클까? 작을까? * 어떤 종류의 색칠도구로 색을 칠했는가? 	20'	

단계	지도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그림은 실내에서 그려진 것일까? 실외에서 그려진 것일까? *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성격은 활발할까? 조용할까? * 내가 화가 났을 때 이 그림을 그렸다면 어떻게 바꾸어 그리겠는가? * 내가 행복할 때 이 그림을 그렸다면 어떻게 바꾸어 그리겠는가? 		
	학습목표	몸을 움직이며 액션페인팅을 해봅시다.		
전개	구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종이를 교실 바닥에 펴고 서보기 · 큰 종이 위를 걸어다니기 · 큰 종이 위에 붓을 들고 걸어다니기 · 지금 내가 행복한지, 기쁜지, 화가 났는지, 기운이 없는지 생각하며 걷기 	50'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붓에 물감을 묻히고 교실 바닥에 있는 종이에 흩뿌리기 		
정리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 공동의 작품에 대해 의견 교환하기 	10'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비되는 색깔을 사용하여 그림 그리기 		

마) 수업 결과물

<표Ⅲ-28> 제9기 수업결과물

 <p><그림Ⅲ-30> 제작과정</p>	 <p><그림Ⅲ-31> 우리는 하나</p>
<p>학급 학생들이 돌아가며 한 명씩 붓을 잡아 물감을 뿌렸다. 색은 각자 원하는 색으로 결정했다.</p>	<p>작품의 제목을 학생들이 결정했다. 모두 함께 제작했으므로 ‘우리는 하나’라는 제목을 지었다.</p>

10) 제10기: 대비되는 색깔을 사용하여 그림 그리기

가)활동작품



<그림Ⅲ-32> 마크 로스코, 주황과 노랑, 1956

나) 학습목표: 대비되는 색깔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다) 질문

로스코는 색채로 면적과 볼륨을 만든다. 즉 색채는 회화의 평면적인 면적이 되기도 하고 빛으로 채워진 볼륨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색채는 물감으로서의 색 자체의 물리적 실재가 아니라 또 다른 실재로 향하는 출구가 될 수 있다고 로스코는 생각했다. 학생들은 로스코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커다란 면적에 그려진 서정적 색을 감상하며 평면성에서 나오는 색의 진중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그림에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 이 작품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점인가? 선인가? 면인가? 색깔인가?
- * 화가는 어떤 종이에 그림을 그렸을까?
- * 화가는 이 그림을 그릴 때 기뻐했을까? 슬펐을까?
- *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짧게 걸렸을까?
- * 이 그림을 옷에 그린다면 어떤 계절에 입고 다닐까?
- * 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산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라) 수업과정안

<표Ⅲ-29> 제10기 수업과정안

주제	대비되는 색깔을 사용하여 그림 그리기			
학습 목표	◦ 대비되는 색깔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단계	지도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동기 유발	작품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크 로스코의 '주황과 노랑' 감상하기 • 작품에 질문 던지기 * 이 작품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점인가? 선인가? 면인가? 색깔인가? * 화가는 어떤 종이에 그림을 그렸을까? * 화가는 이 그림을 그릴 때 기뻐했을까? 슬펐을까? 	20'	

단계	지도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짧게 걸렸을까? * 이 그림을 옷에 그린다면 어떤 계절에 입고 다닐까? * 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산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대비되는 색깔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려 봅시다.		
전개	구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하고 싶은 패턴과 색깔에 대해 생각하기 · 파스텔로 1차 스케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비되는 색 찾기 - 어울리는 색 찾기 	50'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종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색깔이 돋보이는 작품 제작하기 		* 색 종이, 가위, 풀
정리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와 작품에 대해 의견 교환하기 	10'	

마) 수업 결과물

<표Ⅲ-30> 제10기 수업결과물

 <p><그림Ⅲ-33> 여름</p>	 <p><그림Ⅲ-34> 겨울</p>
<p>두 작품 모두 한 학생이 만든 것이다. 투명한 종이 위에 여러 가지 색의 동그라미를 붙인 후 ‘여름’이라고 제목을 지었다. 여름바다와 하늘이 가진 투명한 푸름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투명한 종이 아래 빨간 종이를 붙인 후 제목을 ‘겨울’로 정정하였다. 똑같은 모양과 색의 무늬지만 바탕의 색이 변하면서 바뀌는 분위기로 계절로 형상화했다.</p>	

나. 사후 설문지 분석

학생들이 미술교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질문했을 때 <표Ⅲ-31>같은 답을 얻었다.

<표Ⅲ-31> 사후설문지 1번 문항

질문	응답	빈도(명)	백분율(%)
미술과목을 좋아합니까?	매우 그렇다.	8	28.5
	그렇다.	8	28.5
	보통이다.	8	28.5
	아니다.	4	14.2
	전혀 아니다.	0	0

85.5%의 학생들이 미술과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14.2%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양상을 나타내었다. 호의적인 반응은 사전 설문을 실시했을 때보다 18.6% 증가했으며, 부정적인 반응은 14.2% 감소하였다.

미술 활동에 대한 선호도를 질문했을 때 <표Ⅲ-32> 같은 답을 얻었다.

<표Ⅲ-32> 사후설문지 2번 문항

질문	응답	빈도(명)	백분율(%)
다음 미술 활동 중에서 가장 흥미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환경 및 생활용품 살펴보기	7	25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기	12	42.8
	미술작품 감상하기	9	32.1

사전 설문을 실시했을 때보다 표현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10.6% 상승하였으며, 감상 영역에 대한 선호도는 14.3% 높아졌다.

추상화 작품을 감상하고 질문을 던지는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하였고 학생들의 답변은 <표Ⅲ-33>와 같다.

<표Ⅲ-33> 사후설문지 3번 문항

질문	응답	빈도(명)	백분율(%)
추상화 작품을 감상하고 질문을 던지는 활동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매우 그렇다.	8	28.5
	그렇다.	9	31.0
	보통이다.	7	25
	아니다.	3	10.7
	전혀 아니다	1	3.5

84.4%의 학생들이 추상화 작품을 감상하고 질문을 던지는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흥미를 보여주었다. 14.2%의 학생들은 이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28명의 학생 중 추상화 작품을 감상하고 질문을 던지는 활동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 놓은 24명의 학생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답을 하였다.

<표Ⅲ-34> 사후설문지 4번 문항

질문	학생 답변
<p>왜 추상화 작품을 감상하고 질문을 던지는 활동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기고 하고 낙서 같기도 하여 흥미가 생겼다. - 작품마다 개성이 달라서 재미있었다. - 복잡한 그림 속에서도 각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고, 표현이 재미있었다. - 선과 선이 어우러지는 오묘한 작품들이 많았다. - 재미있고 신기해서 좀 더 추상화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 -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다.(4명) -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작품을 볼 때 뭔가가 느껴진다.(2명) - 상상을 하게 되어서 흥미롭다.(2명) - 복잡하면서도 자유로운 느낌이 있다. - 작품을 보면서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는 것이 재미있었다.(2명) - 한편으로 보면 낙서 같은데 그 낙서에서 질문을 통해 무언가를 찾는다는 것이 재미있었다.(2명) - 신비롭고 감미롭다. - 그림 속에서 질문을 통해 다양한 모양을 찾는 활동이 재미있었다.(2명) - 감상한 추상화들이 멋있었다.(2명) - 추상화 작품은 아름다운 것도 있고 신기한 것도 있다. 그림을 보면 감동을 받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다.

총 28명의 학생 중 추상화 작품을 감상하고 질문을 던지는 활동에 흥미를 갖고 있지 않은 4명의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표Ⅲ-35> 사후설문지 5번 문항

질문	학생 답변
왜 추상화 작품을 감상하고 질문을 던지는 활동에 흥미를 갖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루하다.(3명) - 추상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대표작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학생들은 추상화 자체에 흥미를 가지지 않았으며 활동을 지루하다고 인식했다.

다음은 추상화 작품을 감상하고 질문을 던지는 활동이 그림을 그리거나 만드는 활동(표현)을 할 때 발상이나 기법의 전환에 도움이 되었는지 질문하였다. 학생들의 답변은 <표Ⅲ-36>와 같다.

<표Ⅲ-36> 사후설문지 6번 문항

질문	응답	빈도(명)	백분율(%)
추상화 작품을 감상하고 질문을 던지는 활동이 그림을 그리거나 만드는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8	28.5
	그렇다.	9	32.1
	보통이다.	8	28.5
	아니다.	3	10.7
	전혀 아니다	1	3.5

89.1%의 학생들이 추상화 작품을 감상하고 질문을 던지는 활동이 표현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14.2%의 학생들은 부정적인 대답을 했는데 이 비율은 앞선 질문에서 추상화를 감상하는 활동이 지루하다고 대답한 학생들의 비율과 동일하다.

총 28명의 학생 중 추상화 작품을 감상하고 질문을 던지는 활동이 표현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데 긍정적으로 답변한 24명의 학생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질문하였다.

<표Ⅲ-37> 사후설문지 7번 문항

질문	응답	빈도(명)	백분율(%)
추상화 작품을 감상한 후 질문을 던지는 활동이 그리거나 만드는 활동을 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추상화를 감상하고 나서 표현을 하는 데 두려움이 줄어들었다.	4	16.6
	추상화의 다양한 제작 방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12	50
	추상화의 다양한 재료 사용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3	12.5
	내가 표현하고 싶은 방식으로 그려도 되어서 도움이 되었다.	3	12.5
	자세하고 꼼꼼하게 그리지 않아도 작품이 될 수 있어서 안심이 되었다.	2	8.3

16.6%의 학생들이 표현의 두려움이 줄어들었다고 답변했다. 50%의 학생들은 추상화의 제작 방법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대답했으며, 12.5%의 학생들은 추상화를 제작하는 데 이용하는 다양한 재료의 사용에서 아이디어를 얻었

다고 했다. 12.5%의 학생들은 표현의 자유에서 편안함을 느꼈으며, 8.3%의 학생들은 구체적이고 꼼꼼한 묘사에서 벗어나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심이 되었다고 답변했다.

총 28명의 학생 중 추상화 작품을 감상하고 질문을 던지는 활동이 표현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대답한 4명의 학생에게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물었다.

<표Ⅲ-38> 사후설문지 8번 문항

질문	응답	빈도(명)	백분율(%)
추상화 작품을 감상한 후 질문을 던지는 활동이 그리거나 만드는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상화를 이해하기 어렵다.	0	0
	추상화를 감상하고 질문을 던지는 활동이 재미없다.	1	25
	활동을 해도 표현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1	25
	추상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1	25
	나는 원래 표현을 잘 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이 필요하지 않다.	1	25

추상화 작품을 감상한 후 가장 먼저 떠올랐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질문을 하였고 학생들의 대답은 <표Ⅲ-39>와 같다.

<표Ⅲ-39> 사후설문지 9번 문항

질문	응답	빈도(명)	백분율(%)
추상화 작품을 감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은 누구일까?	4	14.2
	이 작품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18	64.2
	이 작품을 만드는데 어떤 재료가 사용되었나?	3	10.7
	화가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2	7.1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인가?	1	3.5

14.2%의 학생들이 작품을 그린 화가에 대한 질문을 떠올린다고 답변했다. 작품의 의미에 질문을 던지는 학생들은 64.2%였고, 작품의 재료에 궁금증을 가지는 학생들은 10.7%였다. 7.1%의 학생들은 작품의 발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에 관한 질문을 떠올렸으며 작품의 제목을 궁금한 학생들의 비율은 3.5%였다.

다음 추상화를 보고 질문을 던져보도록 학생들에게 요청했다. 답변은 <표Ⅲ-40>와 같다.

<표Ⅲ-40> 사후설문지 10번 문항

학생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그림은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 화가는 이 그림으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 - 이 작품에서는 무엇이 주인공일까? - 이 작품은 무엇을 생각하며 그린 것일까?



<그림Ⅲ-35>파울 클레, Legend of The Nile, 1937

- 내가 모르는 이 작품의 특성은 무엇인가?
- 파란색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중간 중간에 보이는 갈색 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 왜 이상한 기호들이 그려져 있을까?
- 왜 갈색 테두리가 둘러져있을까?
- 이 그림의 제목은 무엇인가?
- 누가 이 그림을 그렸을까?
- 그림 아래의 사람 모양은 무엇을 의미할까?
- 화가는 왜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가?
- 왜 사람을 길게 표현했는가?
- '*'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 우주를 나타낸 그림인가?
- 이 작품의 의도는 무엇인가?
- 이 작품을 그리는 데 사용한 재료는 무엇인가?
- 파란색은 왜 직각사각형으로 표현되었는가?
- 문자를 표현한 것인가?

- 이 그림의 주제는 무엇인가?
- 화가는 왜 그림 중간 중간에 얇은 선으로 기호를 그렸는가?
- 신비한 별 속에서 영켜있는 세계가 있고 집은 좁은 길로 이어져 있는 것 같다.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고 사람의 얼굴도 그려져 있다.
- 왜 사람 모양의 형태가 그림의 중심에 그려져 있는가?
- 화가는 왜 사람을 묘사할 때 선으로만 그렸을까?
- 화가는 왜 3가지 색만 사용했을까?
- 크기가 다른 동그라미가 여러 개 그려진 이유는 무엇인가?
- 이 그림을 뒤집어서 보면 느낌이 달라질까?
- 우리가 배웠던 화가의 작품인가?
- 사람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것을 추상화라고 할 수 있을까?
- 어린아이의 그림처럼 그리면서 화가가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다. 수업 결과물 및 사후 설문지 결과의 시사점

1) ‘완벽한 구상’의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사전 설문지 결과가 시사했던 대로 학생들은 활동 전 추상화를 접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미술과에서 표현 활동을 할 때 교사와 다른 학생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 제작활동을 하였으며,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비슷한 색감과 재료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활동 후 가장 큰 성과는 학생들이 완벽하게 대상을 화폭에 재현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그간 미술 시간에 대상의 완벽한 구상적 재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화폭 전체를 색감으로 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압박에서 벗어나면서 미술과 발상 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했던 학생들도 타인의 평가를 받기 위한 작품이 아니라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재료로 새로운 표현방법을 살펴보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대상의 재현은 카메라의 기능이기 때문에 미술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면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꼼꼼하게 색칠한 작품’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주제에 알맞게 표현한 작품’이라는 점을 인식시켰다.

2) 생활 속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기

학생들에게 미술 시간에 사용할 재료를 떠올라보라고 하면 그림물감, 크레파스, 파레트, 물통, 붓 등을 말한다. 본 연구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색종이 포장지, 이면지, 비닐우산, 우유갑 등을 이용하여 미술작품을 제작하였고 가위 대신 손으로 찢기, 종이에 구멍 내기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였다.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모두 미술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신체도 훌륭한 표현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미술재료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배제하고 주변의 물건 및 자연물을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할 때 의외의 표현방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3)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을 찾는 탐구의 중요성

대부분의 학생들이 추상화와 처음 대면하는 순간 “이게 뭐지?”라는 반응을 보인다. 그들 나름의 첫 번째 질문을 던진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의도된 발문이 없으면 대다수 학생의 질문은 여기서 그친다. 그래서 교사가 해당 추상화의 특징에 알맞은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작품을 천천히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양식과 색감, 재료의 작품을 대할 때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라는 반응과 함께 무심코 관찰을 멈추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관찰이 없이는 감상을 할 수 있다. 의문을 가지고 작품과 마주하는 순간이 길어질수록 학생들은 그들의 수준에서 각기 다른 질문을 떠올리고 각기 다른 답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 활동의 원동력은 스스로 쌓아올렸던 경험과 생각의 더미이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스키마를 형성해나가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알맞은 수업으로서, 학생들의 내면과 작품 외적인 요소가 결합하여 의도하지 않았던 독특한 표현으로 수업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4) ‘예술’에 대해 정의내리기

학생들은 아름다운 미술작품에 대해 정의를 내릴 때 ‘예쁜 색으로 꼼꼼하게 칠하여 완성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추상화를 감상하고 이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미술의 가치 중 ‘새로움’, ‘일깨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1917년 미국 독립미술가 협회 전시회에 마르셀 뒤샹이 변기를 전시한 후 ‘샘’이라는 이름을 붙인 후 사람들은 미술이 무엇이고 예술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미술이 꼭 장인처럼 모든 것을 만들고 완벽하게 대상을 재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상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점을 떠올리게 된 것이다.

학생들은 새로운 생각의 출발이 미술에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좀 더 자유롭게 표현을 시도했다. 학생들이 미술에서 경험하는 새로움과 일깨움의 가치는 곧 예술 전반적인 분야의 가치이기도 하다. 사람은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5)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미적으로 체험하기

인성교육의 차원으로 ‘틀리다’와 ‘다르다’의 차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이 많다. 미술과에서도 서로 다른 작품을 감상하며 시각적으로(또는 촉각적으로) ‘다르다’를 경험할 수 있다. 본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강조하였던 내용이 낯선 표현 기법과 발상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자신의 느낌을 가진 선과 색감, 재료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미적인 감상체이므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활동이 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점과 선, 면과 양감, 색감, 질감을 보고 직접 표현해 보며 학생들이 다른 것이 새로운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활동 초반에는 추상화를 낯설게만 받아들이던 학생들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추상화를 ‘재미있고 흥미로운 감상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다. 또한 자신만의 발상으로 작품을 표현하며 다른 학생의 작품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평소 발상과 표현에 자신감이 없었던 학생들에게 신선한 동기를 부여해주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간직함과 동시에 내면의 세계에 눈을 뜨는 연령이므로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표현의 영감을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내면 모두에서 가져오는 양상을 보였다.

6) 현대미술문화를 향유하는 능력 키우기

글을 해독하는 데 문해력이 필요하듯이 미술작품을 해석할 때는 시각적 문해력이 필요하다. 영상매체가 일상화된 지금 시대에 디지털 세대로 명명되는 어린 학생들에 대한 시각적 문해교육은 필수적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미지를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난 학생들에게 이미지를 해독하고 하나의 언어적 관념으로 다시 머리 속에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필수습득능력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분리, 해체, 결합을 거치며 무수한 경우의 수만큼 늘어나는 현대미술의 종류와 가치관은 관람자에게 시각적 충격을 자신의 문화 안에서 해독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현대미술을 즐기고 향유하기 위해서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이해도를 올리는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는 경험이 중요하며, 이러한 경험은 훗날 성인이 되었을 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준다.

경험의 척도가 정신세대의 구축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추상화에 대해 접해보지 못했던 학생들이 추상화 수업에 참여한 후 추상화를 익숙한 미술의 한 갈래로 받아들이고 질문을 던지는 모습에서 시각적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어려서부터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7) 질문의 힘 인식하기

아무런 지식과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 학생들도 제1기 수업을 진행했을 때는 질문을 먼저 던지지 않았다. 교사의 의도된 발문이 있을 때만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한 두명 있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추상화에 대해 학생들이 지식을 쌓고 인식을 하게 되면서 추상화에 대해 질문을 생각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활동 초반에는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가?”, “화가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대부분이었다면 수업을 진행할수록 그림 속 미세한 부분들을 학생들 스스로 찾아내고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지식이 쌓이면서 질문이 생기고, 질문을 던질수록 학생 스스로 답을 구성하는 능력이 늘어갔다. 그리고 답을 찾은 학생들은 표현에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I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추상화에 질문던지기를 통한 미술과 표현력 신장’이라는 주제로 실시되었으며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8명이다. 연구기간은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4개월 10회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미술 시간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한 회기당 소모시간은 2시간이었다.

제1기는 ‘추상화의 뜻 알아보기’를 주제로 피에트 몬드리안의 ‘검정과 흰색의 구성 No.10:부두와 해양, 피에트 몬드리안’를 감상했다. 그림에 등장하는 단순함과 기호로 표현된 자연의 모습을 보며 학생들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형태와 선을 단순화하고 기호로 나타내는 표현활동을 했다.

제2기는 ‘공간 만들기’를 주제로 루치아노 폰타나의 ‘Concepto Especial’을 감상했다. 작품 속 작은 균열이 2차원 공간을 3차원으로 전환하는 광경을 감상한 후 학생들이 2차원의 작품을 3차원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했다.

제3기는 ‘소리를 선과 색으로 나타내기’를 주제로 바실리 칸딘스키의 ‘인상 III’을 감상하였다. 학생들은 이 작품의 따뜻한 색과 부드러운 곡선에 주목하였고, 이에 대한 질문과 답을 바탕으로 음악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였다.

제4기는 ‘선으로만 그림 그리기’를 주제로 파울 클레의 ‘종을 달고 있는 천사’를 감상하였다. 학생들은 장난기 가득한 천사의 표정을 주목했고 이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면과 색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선으로만 그림을 그려보면서 미술적 표현이 반드시 어른스러운 선과 완벽한 색감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다.

제5기는 ‘색으로 학교 풍경 표현하기’가 주제이며, 로베로 들로네의 ‘동시에 열린 창, 1부, 제2모티브’를 감상하며 수업을 시작했다. 학생들은 색감의 화려함과 몽환적이면서도 직선의 강한 느낌에 대해 질문을 했다. 우리 학교 풍경을 색감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할 때 대다수의 학생들이 부드러운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파스텔을 선택했다.

제6기의 주제는 ‘옵아트 그리기’이다. 학생들은 빅토르 바자렐리의 Vega를 감상하며 컴퓨터 그래픽 화면을 연상시키는 수학적인 질서도 예술에서 일컫는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수업을 할 때는 수학적 아름다움에 대해 경험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하였고, 학생들은 작은 색 사각형을 흰 종이에 붙이며 시각적 아름다움의 다양성을 표현하였다.

제7기의 주제는 ‘모양을 단순하게 만들어 표현하기’이다. 앙리 마티스의 ‘달팽이’를 감상하며 학생들은 아이의 그림같은 거칠면서 단순한 표현, 강한 색감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 그림은 자세하고 섬세한 표현만이 예술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인지시켰다. 학생들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연물의 선과 형태, 색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거칠고 단순한 표현이 가진 자유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제8기는 ‘다양한 흰색 표현하기’를 주제로 카지미르 말레비치의 ‘흰색 사각형 위의 흰색 사각형’을 감상하며 시작했다. 학생들은 화가가 같은 색을 사용하여 작품을 담고자 한 의도를 궁금하게 생각하였으며 이에 대한 추측을 하며 색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아름다움과 대비되는 고요하면서도 강한 단순성을 경험하였다. 여러 가지 질감의 흰색 재료들을 이용하여 오로지 흰색을 표현하면서 흰색이 가진 다채로운 느낌을 체득할 수 있었다.

제9기의 주제는 ‘액션 페인팅’이었다. 잭슨 폴락의 Number-1을 감상하며 학생들은 작품의 모호함과 제목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교실 바닥을 덮는 종이에 의도된 우연적 기법을 직접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며 정교함 너머에 있는 미술의 자율적 표현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

제10기의 주제는 ‘대비되는 색깔을 사용하여 그림 그리기’이다. 마크 로스코의 ‘주황과 노랑’을 감상하며 학생들은 화가가 두 가지 색깔로 표현하고 싶어한 세계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학생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비되는 색깔을 이용하여 작품을 표현하면서 단순하지만 깊이있는 표현이 색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체험하였다.

학생들은 총 10기에 진행되었던 활동을 통해 추상화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추상화를 감상할 때 질문을 시작으로 작품 세계와 자신의 내면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새롭고 다채로운 표현기법을 익힐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이 활동을 즐겁게 여겼던 이유는 그동안 미술적 아름다움이라고 믿었던 정교함, 섬세함, 구체적인 묘사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발상 자체가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선사하였다.

2.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으로 바탕으로 추상화에 질문 던지기를 통한 표현력 신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미술교육과정을 통해 추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은 어른들보다 추상화를 열린 마음으로 감상하며 적극적으로 향유하고자 하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다. 미술의 역사에서 감상의 주도권은 화가에서 관람자에게 넘어갔으며, 관람자는 적극적으로 그림에 개입할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은 이러한 주도권을 쥐어주기에 적합한 연령대에 있으므로 이 시기에 편견없이 다양한 미술의 아름다움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의무이다.

둘째, 미술 교과에서도 질문을 중요한 콘텐츠로 다루어야 한다. 질문을 하는 행위는 텍스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며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첫걸음이자 결과물이다. 미술교과가 단순한 '그림 예쁘게 그리기' 활동 시간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문을 수업의 중요한 화두로 삼고 발판으로 삼아서 수업의 주제와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 추상화를 감상 및 표현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작품들은 서양 화가들에 의해 그려진 유명한 그림이 대부분이며, 화가들의 국적 또한 서구권 안에서도 한정된 국가들로 이루어져있다. 표현의 다양성을 목표로 하는 연구에서 이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꼽을 수 있으며, 특히 한국 추상화를 소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에 관련된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주기를 희망한다.

넷째, 학생들에게 재료선택과 표현방법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미술교과 시간 뿐만 아니라 각종 교내외 미술대회에서도 초등학생에게 요구하는 표현기법은 그리 다양하지 않다. 학생들이 스스로의 감성과 욕구를 담을 수 있는 알맞은 그릇을 고를 수 있게 된다면 발상에 대한 스트레스 및 ‘완벽한’ 표현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미술과 표현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최대 2시간 정도를 할애하는 교육과정 아래에서 발상 및 표현에 속도가 붙는다는 것은 좀 더 효율적으로 미술과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섯째, 미술과 ‘표현력’의 범위 안에 발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미술과 수행평가를 시행할 때 결과물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외에 발상의 기발함만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표현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앞으로 미술과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예술세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시도가 있어야 하며, 미술계가 시도하는 변화들을 교육과정 안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참 고 문 헌

- 김경태(2016). 미술활동에 대한 부정적 양상 개선을 위한 미술수업 방안 연구: 자
기 주도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수진(2002). 미적 체험을 위한 통한 추상 표현 지도 방안 연구-초등학교 5학년
위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이경(2003). 추상회화 감상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류지영(2009). 현대미술 감상 및 표현수업 지도방안 연구-실험적 관점에 의한 7가
지 방법론을 중심으로. 춘천교육대학교.
- 박신영(2014). 생각의 도구를 통한 추상표현 지도 방안 및 효과 연구-초등학교 5
학년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배수현(2008). 초등 미술에서의 추상표현 능력 신장을 위한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정주. (2015). 교사 주도의 현대미술 감상수업이 초등학교 6학년의 학습동기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미령(2007). 비평적 사고 능력을 위한 그림읽기 미술 감상교육을 위한 연구. 홍
익대학교 교육대학원.
- 우종수(2013). 질문 생성 전략이 초등학생의 인지적 능력과 정서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민주(2013). 루트 번스타인의 사고도구를 활용한 미술과 발상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윤서원(2011). 초등학교 미술교육에서 토론을 통한 현대미술 감상 지도 방안 연
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원영미(2011). 현대 미술 사조의 양식을 활용한 미술 표현 지도 방안 연구-초등학
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이나영(2013). 추상미술과 자아의 감성표현 연구-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성신여자
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미승(2010). 현대미술 표현 기법이 아동의 표현활동에 미치는 지도방안 연구-
초등학생 미술 수업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민희.(2005). 미술비평을 통한 추상미술 감상 지도 방안 연구(조형요소와 원리 학습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 이용일(2011). 초등학생의 미적 인지 발달 단계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이지은(2008). 아동미술교육에 있어서 큐비즘 적용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은하(2012). 반응 중심 이론에 기초한 초등학교 미술 감상 지도 방안.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보견(2011). 인성의 형성과 치료를 위한 미술교육 사례 연구-미술감상을 통한 인성치료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 최은영(2016). 미술과 중심 STEAM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 김성숙 외.(2003). 미술교육과 문화. 학지사.
- 김현화.(1998). 20세기 미술사. 한길아트.
- 김현화.(2001). 경계없는 현대미술.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 서울교대미술연구회.(1994).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 진중권(1994). 미학오디세이 1. 휴머니스트.
- 브라이언 크리스찬.(2012).가장 인간적인 인간. 책읽는 수요일.

A b s t r a c t

A Study on Improving Expressiveness in Art Class through Asking Questions to Abstract Painting

Eun-Gyeong Im

Jeju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lementary Art Education Major
Thesis director Jae-Hoan Oh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expressiveness in art class through asking questions to abstract painting. Appreciation and expression in art class was conducted for 10 sessions in 4 months from September 1st to December 31st, 2015 subjecting 28 5th graders at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Jeju-si. Before the session, pre-questionnaire was designed based on contemplation of previous studies, which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urrent condition of art class such as preference for each field of art, and understanding toward abstract painting. The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by comparing and reviewing the survey result, abstract painting appreciation and expression activity result, post-questionnaire result.

The reason that abstract painting was chosen as a tool for expressiveness improvement lies on its use of wide-range of material and production method. In order to lower the negative limitation to expression, and promote free imagination, abstract painting appreciation was introduced and associated with expression activity. Motivation of each session was composed of an activity starting by appreciating abstract painting to asking

questions and looking for answers. At the level of development, students designed and painted artwork after being inspired by the expressive technique or material of abstract painting. For the final level, students appreciated each others' paintings.

The conclusions obtained by analyzing pre, post-questionnaire and session results regarding the study subject are as follows.

First, upper graders at elementary school should be provided with chance to appreciate abstract painting through arts education. It is duty of education to provide chance to encounter the beauty of various types of art without any stereotype at this period.

Second, question must be a significant contents of art class. Asking question is an active intervention to text, the first step and result of self-oriented learning.

Third, various types of abstract paintings must be presented to students. Different and unique sensibility and culture exists along with the number of currently existing abstract paintings.

Fourth, students should be granted with liberty to choose material and expressive technique. If they are able to choose proper method to express their own unique emotion and desire, they will lighten the burden to "perfect" expression and stress for ideas, and participate in expression activity in art class.

Fifth, idea must be included in the range of "expressiveness" in art class. As endless redefinition of "what is art?" has been in discussion, through an attempt to broaden the range of expressiveness in school will improve sense of beauty and maximize the expressiveness of students.

School should provide various visual stimulation for students to obtain visual literacy. With the experience to secure the equal status as artist in the process of asking question and looking for answer by oneself regarding the artworks, the learners are able to recreate their own artistic world.

Keyword : Abstract painting, Question, Expression, Idea, Visual literacy

부 록

[부록 1] 사전설문지

[부록 2] 사후설문지

[부록 1]

사전설문지

5학년 ()반 ()번 이름()

♣ 이 설문지는 5학년 학생들이 미술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질문을 천천히 읽고 응답해주세요.

1. 미술과목을 좋아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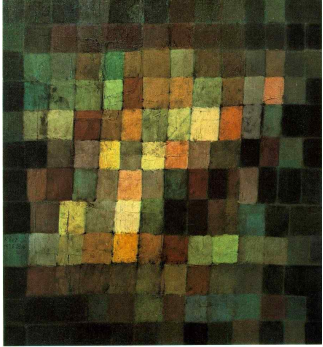

2. 다음 미술 활동 중에서 가장 흥미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자연환경 및 생활용품 살펴보기
②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기
③ 미술작품 감상하기

3.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4. 미술과 표현활동을 좋아합니까?(그리기, 만들기 등)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5. 미술과 감상활동을 좋아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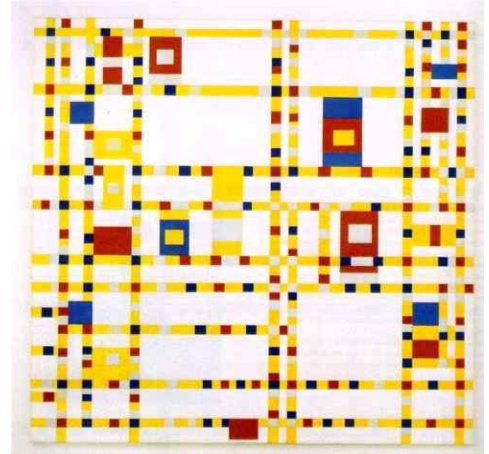
6. 다음 두 그림 중 마음에 드는 그림에 V표를 하고,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작품 1	작품 2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p>☞ 응답 이유:</p>	

7. '추상화'라는 단어를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8. 다음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 질문을 적어보세요.

	
---	--

[부록 2]

사후설문지

5학년 ()반 ()번 이름()

♣ 이 설문지는 5학년 학생들이 선생님과 추상화에 대해 공부를 한 후 미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질문을 천천히 읽고 응답해주세요.

1. 미술과목을 좋아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2. 다음 미술 활동 중에서 가장 흥미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자연환경 및 생활용품 살펴보기
②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기
③ 미술작품 감상하기
3. 추상화 작품을 감상하고 질문을 던지는 활동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①②③ 선택→4번으로 가시오. / ④⑤ 선택→5번으로 가시오.)
4. 왜 추상화 작품을 감상하고 질문을 던지는 활동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

5. 왜 추상화 작품을 감상하고 질문을 던지는 활동에 흥미를 갖지 않게 되었습니까? ()

6. 추상화 작품을 감상하고 질문을 던지는 활동이 그림을 그리거나 만드는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되었습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①②③ 선택→7번으로 가시오. / ④⑤ 선택→8번으로 가시오.)

7. 추상화 작품을 감상하고 질문을 던지는 활동이 그림을 그리거나 만드는 활동을 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

- ① 추상화를 감상하고 나서 표현을 하는 데 두려움이 줄었다.
② 추상화의 다양한 제작 방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③ 추상화의 다양한 재료 사용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④ 내가 표현하고 싶은 방식으로 그려도 되어서 도움이 되었다.
⑤ 자세하고 꼼꼼하게 그리지 않아도 작품이 될 수 있어서 안심이 되었다.

8. 추상화 작품을 감상하고 질문을 던지는 활동이 그림을 그리거나 만드는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추상화를 이해하기 어렵다.
② 추상화를 감상하고 질문을 던지는 활동이 재미없다.
③ 활동을 해도 표현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④ 추상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⑤ 나는 원래 표현을 잘 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이 필요하지 않다.

9. 추상화 작품을 감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

- ①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은 누구일까?
- ② 이 작품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 ③ 이 작품을 만드는 데 어떤 재료가 사용되었나?
- ④ 화가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 ⑤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인가?

10. 다음 추상화를 보고 질문을 던져보세요.